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BION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제작 배경

2024년에 25수능 대비로 만들던 자료를 묵혀두고 있다가,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자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의 자료를 조금 다듬은 것에 불과하다 보니 지금의 생각과는 다른 선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자료이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이 자료를 요약하자면, '생윤 기출문제가 아니면서, 평가원에서 만든 고교생 대상 윤리과 단독 시험 기출문제 중, 생윤 학습자에게 필요해 보이는 문제를 선별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크게 다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윤리 for 생윤」 동양의 사회사상편 : 05.예비~13.11
- ② 「윤사 for 생윤」 윤리 사상 편 : 14.예비~25.09
- ③ 「윤사 for 생윤」 사회사상편 : 14.예비~25.09
- ④ 최종 점검 50제
 - 제 판단 실수로 미처 수록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25 수능 이후의 문제들을 선별하였습니다.
 - ※ 문제에 회색 처리된 부분은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들입니다.
- ⑤ 정답 및 부록
 - 부록에는 역대 윤리과 기출문제의 평가원 이의신청 답변서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기준하에 문제를 선별하였다 보니 다음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 선별된 문제 중에는 '이런 걸 봐야 한다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b) 또, 생윤 지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최대한 선별하려 했지만,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c) '이게 왜 여기 있지?' '이 문제가 왜 없지?' 싶은 문제들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a)·b)·c) 모두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것이니, 자료 사용자의 편의대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오타가 있거나 답지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나 정답이 이상한 것 같으면 원본 기출문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을 통해 오류 확인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용법

자료 사용법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학습자 편의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학년도부터 본다면 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제가 당시 인상 깊게 보았던 수능특강의 학습법 안내인데,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인용하겠습니다.

- EBS 교재에 나오는 제시문뿐만 아니라 선지들도 수능과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사상가들과 관련된 문항을 공부하는 경우, 선지의 내용도 **꼼꼼히 파악**해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EBS 교재를 공부하면서 주요 사상가들의 **제시문**에 대해서는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주요 사상과 관련된 문항 선지**들의 경우도 정답인 경우 왜 정답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답의 경우에도 왜 오답인지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 2025학년도 생활과 윤리 수능특강 '수능 고득점을 위한 EBS 교재 활용법'

윤리와 사상은 과목의 특성상 많은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그 사상가들의 입장을 세세하게 파악하거나 원문을 모두 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능특강 본문에 제시된 각 사상가의 입장을 핵심 표현(용어)을 중심으로 암기해 두었다가 문제의 제시문이나 선택지를 분석해야 한다.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EBS 수능특강의 본문, 날개단의 용어 설명, 자료 플러스를 **꼼꼼하게 반복하여 학습**해야 한다. 또한 '수능 기본 문제'나 '수능 실전 문제'를 풀 때에는 **가볍게 정답만 찾고 지나가지 말고 주어진 제시문과 선택지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하듯이 꼼꼼하게 학습**해야 한다.

- 2025학년도 윤리와 사상 수능특강 '수능 고득점을 위한 EBS 교재 활용법'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

성명	BION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 ㉠에서 제시하는 ㉡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이의신청 답변 [06.06.02]

(가) ㉠ 소국 과민(小國寡民) 사회는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즉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無爲)와 무욕(無慾)의 이상 사회이다.
 (나) 사회 사상가들이 파악한 ㉡ 현실 사회의 문제점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이상 사회의 모습도 매우 다양했다.

	문제점	해결 방안
①	백성이 굶주린다.	무지(無知)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②	백성이 악을 행한다.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③	백성을 다스리기 어렵다.	지도층이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④	어질고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진다.	성인(聖人)이 나라를 다스린다.
⑤	노인이 편히 생을 마치지 못한다.	젊은이가 모두 자기 일을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7.09.08]

갑: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을 추구하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을: 남의 나라 사랑하기를 자기 나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면 천하의 혼란은 극복될 것이다.
 병: 옛날의 훌륭한 통치자들은 길에 재를 버리는 사람에게도 중벌을 내렸다. 재를 버리는 것은 가벼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무겁게 했던 것이다.

- ① ‘갑’은 규범과 제도에 의한 통치를 반대하였다.
- ② ‘갑’은 통치자보다는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하였다.
- ③ ‘을’은 생산적인 노동과 검약하는 생활을 강조하였다.
- ④ ‘을’은 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이익의 증진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 ⑤ ‘병’은 상과 벌로써 인간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가), (나)는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8.06.03]

(가)	<input type="radio"/> 통치자는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닦고서 남을 다스려야 한다. <input type="radio"/> 임금의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식이 자식다운다면 바른 정치가 이루어진다.
(나)	<input type="radio"/>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input type="radio"/> 군주가 민심을 배반하고 학정(虐政)을 일삼으면 그는 참다운 군주가 아니다. 이럴 경우 혁명을 일으켜도 결코 반역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보 기>—
 가. (가)는 예(禮)에 의한 교화를 중시한다.
 나. (가)는 재화의 많고 적음보다 고른 분배를 중시한다.
 다. (나)는 정명론을 반대하고 혁명론을 주장한다.
 르. (나)는 인정(仁政)의 실현을 위해 의(義)를 강조한다.

- ① 가, 나 ② 다, 르 ③ 가, 나, 다
- ④ 가, 나, 르 ⑤ 나, 다, 르

4. 갑, 을은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8.11.13]

갑: 성인(聖人)은 군주의 권위를 세워 사람들을 통치하고, 예의를 밝혀 그들을 교화하며, 법도를 일으켜 그들을 다스리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그들을 금(禁)하며, 천하를 모두 인정되고 질서 있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善)에 합(合)하게 하였다.
 을: 무릇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정(人情)에 따라야 한다. 인정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상과 벌을 쓸 수 있다. 상과 벌을 쓸 수 있으므로 금령(禁命)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치도(治道)가 갖추어진다.

- ① 갑은 통치술의 핵심으로 술수를 강조한다.
- ② 갑은 도덕의 실현을 통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 ③ 을은 통치 수단으로서 권력보다 도덕을 중시한다.
- ④ 을은 성정(性情)을 선하게 변화시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 작은 규모의 국가를 지향한다.

[5~6]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예(禮)'와 관련된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08.09.7~8]



5. 위의 내용으로 보아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예가 확립되려면 법과 술(術)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예법을 통해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예란 자연의 질서를 인간 사회에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 ④ 을과 병은 예를 통해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사욕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6.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이 제시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질은 인간에게 이기(利器)와 풍요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부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만을 위한 욕구 충족에 몰입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 ①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선행을 실천한다.
 - ② 외물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안다.
 - ③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세속적 이로움을 함께 나눈다.
 - ④ 물[水]은 도(道)에 가장 가까우므로 항상 물처럼 산다.
 - ⑤ 의(義)를 위주로 하고 이(利)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다.
7. 갑, 을은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9.06.04]

갑: 사회 성원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명분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가신(家臣)들이 국정을 농락하거나 대부(大夫)들이 국가의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천자(天子)에 의하여 예악이 만들어지고 정벌(征伐)이 행해져서 도(道)가 행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을: 결(桀)과 주(紂)가 비록 임금이라 하더라도 폭정을 일삼으며 인의(仁義)를 훼손하였다면, 도적이냐 강도와 같은 이들에 불과하다. 도적이냐 강도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① 갑은 도덕적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였다.
- ② 갑은 법치(法治)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 ③ 을은 인(仁)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주장하였다.
- ④ 을은 갑의 신분과 지위에 따른 역할론에 비판적이었다.
- ⑤ 갑은 강제적 수단, 을은 도덕적 교화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8.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지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은 것은? [09.06.19] [윤사하시는 분들은 정답까지 내보기]

수행 평가 문제지

◎ 문제: 갑과 을의 인성론이 지닌 특성을 논하시오.

갑: 까마귀를 훈련시키는 자는 깃털을 잘라 버린다. 깃털이 잘린 까마귀는 반드시 사람에게 기대어 먹을 수밖에 없으니, 어찌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밝은 군주가 신하를 거느리는 것 또한 이와 같다.

을: 성(性)이란 다만 호오(好惡)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다. 사슴의 성(性)은 산림을 좋아한다. 불행하게 인가(人家)에서 길러지게 되었다라도 그 마음은 끝끝내 산림을 좋게 여겨, 한번 산림을 보면 불현듯 선망하는 마음을 가지니, 이것을 일러 성(性)이라 한다.

◎ 학생 답안

갑은 ㉠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부하를 통솔하기 위한 술수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로 볼 때 갑은 ㉡ 인간의 선악이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중략) ... 한편 을은 ㉢ 성리학의 정통적인 심성론에서 벗어나 인간 존재를 현실성과 개체적 자율성에 근거하여 파악하였다. 따라서 을은 ㉣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9. 다음 사상가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09.09.04]

백성들에게 하기 쉬운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당하기 싫은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다. 하기 어려운 일로써 백성을 감화한다는 것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백성들이 저절로 선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기 쉬운 일로써 그들을 길들인다.

- ① 엄격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수립한다.
- ②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하여 덕치를 구현한다.
- ③ 차별없는 사랑[兼愛]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한다.
- ④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修己], 왕도를 실현한다.
- ⑤ 도(道)를 바탕으로 하여, 다스림이 없이 백성을 다스린다.

[번외. 윤사 선택자들이 풀어보면 좋은 문항]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09.09.06]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그 열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실과 떨어진 유토피아를 실험적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

<보 기>

- ㄱ. 계급 없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한다.
- ㄴ. 상품화된 노동에 의해 인간이 소외된다.
- ㄷ. 민주적 방법에 의한 점진적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
- ㄹ. 계급투쟁의 역사는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시작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9.09.16]



- ① 갑은 사리(私利)를 얻기 위해 작은 불의(不義)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백성들의 기본적 생활 보장이 도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을은 예법(禮法)을 통한 재화의 고른 분배를 주장한다.
- ④ 을은 이로우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과 합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은 '의(義)'와 '이(利)' 중에서 의를 주(主)로 삼지만, 을은 '의가 곧 이'라고 생각한다.

[12~13]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09.11.5~6]



12. 갑, 을, 병의 '하늘'에 대한 관점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인간의 길흉화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② 을은 법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로 보았다.
- ③ 병은 인위적인 선악과 관련이 없는 자연 그 자체로 보았다.
- ④ 갑과 병은 인간 사회 제도와 규범의 근원으로 간주하였다.
- ⑤ 을과 병은 위민·민본을 권장하는 주재자로 생각하였다.

13. 다음은 '이것'에 대한 후세 학자들의 진술이다. '이것'에 대한 갑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것'은 천지(天地)가 만물을 생성케 하는 마음이며, 사람은 '이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는다.
-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사물을 알고 깨닫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다.

- ① 잡념이 들지 않게 하는 마음[心]의 집중이다.
- ②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 만물의 근원이다.
- ③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 원리이다.
- ④ 자기 사육의 극복을 통한 진정한 예(禮)의 회복이다.
- ⑤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자각(自覺)이다.

[번외. 칸트의 '국가'를 다룬 문항이 궁금하다면 볼 것]

14.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6.09]

갑: 국가는 공동의 법칙 아래 이성적 존재자들이 체계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이성적 존재자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이므로 이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 부를 수 있다. 목적의 나라에서 이성적 존재자는 법칙 수립자인 동시에 그 법칙을 따르는 시민이기도 하다.

을: 국가는 객관화된 정신이며 절대 목적 그 자체이다. 윤리적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기가 매우 쉽다.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잘 알려지고 명백한 규칙들을 단지 따르기만 하면 된다.

- ① 갑은 각자의 경향성에 따른 인격의 차이를 중시하였다.
- ② 을은 국가의 목적을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 실현에 두었다.
- ③ 을은 개인이 국가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갖는다고 보았다.
- ④ 갑은 도덕의 원천을 선의지로, 을은 공감으로 보았다.
- ⑤ 갑, 을은 최고의 가치를 개인보다 국가에 두었다.

15.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6.18]

갑: 성인 군주는 함[爲]이 없어도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순박해집니다.

을: 사람들은 제각기 이익을 추구하고 상하(上下)의 이익에는 차이가 있어, 군주는 그렇게 다스릴 수 없고 적절히 조종해야 합니다.

- ① 갑은 부국 강병을 통한 안민(安民)을 주장한다.
- ② 을은 군주보다 백성의 이익을 추구한다.
- ③ 을은 형법(刑法)에 의지한 통치를 강조한다.
- ④ 갑, 을은 통치에서 군주의 도덕성을 중시한다.
- ⑤ 갑, 을은 적은 인구의 소규모 국가를 추구한다.

[16~17]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0.09.6~7]



16.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인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 ② 을은 신분의 분별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 ③ 병은 빈부귀천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확립하려 했다.
- ④ 갑은 패도의 정치를, 을은 무위의 정치를 지향했다.
- ⑤ 을, 병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이용하고자 했다.

17. 다음의 사례에 대해 '갑'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근 공원 이용자들의 민원에 대한 ○○공원 관리소 측의 불성실한 처리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원 측이 화장실의 장애인 통로가 파손되었다는 민원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중략) ... 실제로 얼마 전에 ○○공원 화장실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다가 파손된 통로에 걸려 넘어져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 ① 직무를 유기한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② 공원 관리원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기다린다.
- ③ 공원 관리원들과 민원인들 간에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 ④ 공원 관리 소장이 솔선수범하여 관리원들을 감화시킨다.
-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서로에게 이익이 됨을 주지시킨다.

[18~19]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0.11.8~9]



18. 갑, 을, 병이 주장하는 사상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문명 사회를 추구한다.
- ② 을은 무지하고 무욕한 백성들이 사는 사회를 지향한다.
- ③ 갑, 을은 인륜 도덕에 바탕을 둔 백성의 교화를 강조한다.
- ④ 갑, 병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의 시행을 군주의 역할로 본다.
- ⑤ 갑, 을, 병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한다.

19. 다음 사례 속의 '마음'에 대한 병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생인 ○○○은/는 길을 건너다 위험에 빠질 뻔한 어린 아이를 구하였다. 그 학생이 아이를 구한 것은 모범 청소년상을 받기 위해서도, 남을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평판을 두려워해서도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 발휘되었기 때문이었다.

- ① 자기 수양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다.
- ② 의지가 작용되어야 발현되는 것이다.
- ③ 누구나 차별 없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④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⑤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20~21]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1.06.9~10]



20.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예치(禮治)를 통한 부국강병을 추구한다.
- ② 을은 상과 벌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 ③ 병은 덕을 바탕으로 한 인(仁)의 실천을 강조한다.
- ④ 을은 갑의 사상을 토대로 폭군(暴君)의 교체를 주장한다.
- ⑤ 갑, 을, 병은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중시한다.

21.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갑'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전통 윤리의 근간인 효 의식이 크게 약화되었다. 노부모 부양 기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① 엄한 형벌을 시행하여 효행을 강제해야 한다.
- ② 본성을 변화시켜 효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③ 도덕과 예의로 교화하여 효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 ④ 효 덕목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므로 그것을 지양해야 한다.
- ⑤ 내 부모와 남의 부모를 구별하지 말고 효를 행하게 해야 한다.

22.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이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1.06.17]

갑: 세력과 지위가 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다면, 재화가 넉넉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다투게 된다. 다투면 반드시 혼란해진다. 선왕은 그 혼란스러움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예의(禮義)를 제정하여 직분을 나누었다.

을: 신하가 임금들, 자식이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천하의 상도(常道)이니 바뀌서는 안 된다. ... (중략) ... 상도를 폐지하고 현자를 숭상하면 혼란스럽게 되고, 법(法)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를 등용하면 위태롭게 된다.

<보 기>

- ㄱ. 갑은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부정한다.
- ㄴ. 을은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예악(禮樂)을 강조한다.
- ㄷ. 갑은 인의(仁義)에 의한 교화를 긍정하나, 을은 부정한다.
- ㄹ. 갑, 을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이기적으로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번외. '갑' 지문 첫 문장은 암기하면 좋음.]

23.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09.09]

갑: 자유는 도덕 법칙의 존재 근거이며, 도덕 법칙은 자유의 인식 근거이다. 자유가 없다면 도덕 법칙은 발견될 수 없다. 이러한 자유 덕분에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를 목적의 나라라 부른다.

을: 자유는 인류의 최종 발전 단계인 국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개인은 오직 국가의 구성원으로서만 그 자신의 객관성을 가지고 윤리적 삶을 살며, 참된 의미를 갖는다.

- ① 갑은 도덕 법칙을 공동체가 합의한 산물로 본다.
- ② 을은 국가를 개인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③ 갑은 도덕성의 원천을 이성으로, 을은 감정으로 본다.
- ④ 갑은 인간을, 을은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적 선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본다.

24. 그림은 중국 고대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사상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09.16]



성인(聖人)은 만물을 소유하지도 않고 공(功)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백성들에게 무욕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성인은 부모조차 계산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고 여겨, 이(利)와 해(害)를 통해 조종하는 제도로 다스립니다.

성인은 힘이 아닌 덕(德)으로써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 ① 갑은 만물을 생성하는 인(仁)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인위적인 예법으로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시비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법술(法術)로, 병은 인의(仁義)로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5.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이의신청 답변 [11.11.13]

교화[敎]를 펴지 않고 벌만 준다면 형벌(刑罰)이 많아도 사악함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교화만 펴고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간사한 백성들을 징계하지 못할 것이다. 상과 벌을 주되 원칙이 없다면 풍속이 험악해져 백성이 하나 되지 못할 것이다. ... (중략) ...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예(禮)를 닦아서 조정을 가지런히 하고 법(法)을 바로 세워 관직을 가지런히 한다.

- ① 천하의 이로움[利]이 곧 의로움[義]이다.
- ② 예는 성인(聖人)이 제정한 인위적인 규범이다.
- ③ 인위적으로 만든 법제(法制)는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다.
- ④ 이기적 인간을 다스리는 정치의 요체는 법(法)과 술(術)이다.
- ⑤ 법률은 타고난 덕성인 인의(仁義)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2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A, B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12.06.04]

(가)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고 배를 채워 주며,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 주며,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해 준다.	
(나)	A 그러면 사람들이 다투지 않을 것이다.	B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

	A	B
①	항심(恒心)을 갖게 하라	항산(恒産)을 갖게 하라
②	예법(禮法)을 따르게 하라	형벌을 두려워하게 하라
③	분별적 지혜를 쌓게 하라	마음을 비워 사욕이 없게 하라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게 하라	사회적 이익을 똑같이 나누게 하라
⑤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게 하라	희귀한 재화를 중히 여기지 않게 하라

[번외. 지문 판별 연습]

27. 밑줄 친 '나'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옳은 것은? [12.06.13]

'나'는 만물을 아끼기는 하지만 어질게 대하지는 않으며, 백성을 어질게는 대하지만 친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친한 이를 친애하고 나서 백성을 어질게 대해야 하며,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나서 만물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무명(無明)으로부터 벗어나 자비를 베푼다.
- ② 심재(心齋)를 통해 제물(齊物)에 이르도록 힘쓴다.
- ③ 자기를 수양(修養)하여 이웃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
- ④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쌓아 자연스러움을 회복한다.
- ⑤ 존비친소(尊卑親疎)의 차별을 두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

[번외. 롤스 옛기출이 궁금하다면 볼 것]

2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2.09.03]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순수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의 지위나 계층,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그래서 각자는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 ① 소득 분배는 공정한 사회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 ② 정의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준으로 수립된다.
- ③ 가상적 상황에서 이기주의자로서의 인간은 서로 시기한다.
- ④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 나타난 결과는 불평등해도 인정된다.

29.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 병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2.09.11]



- ① 천하의 이로움이 곧 의로움임을 주장하는가?
- ② 백성들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강조하는가?
- ③ 사치를 삼가고 생산에 힘쓸 것을 주장하는가?
- ④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가?
- ⑤ 본성의 변화를 위해 법(法)과 술(術)을 강조하는가?

30.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11.05]

갑: 형벌(刑)을 통해서 강제하면 백성들은 법망을 피하려고 할 뿐이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없게 됩니다.
 을: 맞습니다. 힘이 아니라 덕(德)으로 다스려야 백성들은 진심으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왕도(王道)입니다.
 병: 제 생각에 두 분 선생님들은 ㉠ 현명한 통치자라면 백성들이 통치자를 위해 선행을 할 것으로 믿지 않고, 비행을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백성들을 조종합니다.

- ① 형벌이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②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③ 덕의 실현을 위해 강제적인 수단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④ 악한 본성의 변화를 위한 교화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⑤ 선한 본성의 발현을 위한 군주의 술선수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31.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11.20]

나와 같은 견해를 지닌 고대 중국 사상가는 '인간이 가진 욕망이 다툼을 낳고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성인(聖人)이 제정한 것이 예(禮)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다른 고대 중국 사상가는 '성대한 장례나 삼년상과 같은 예(禮)가 천하에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후자의 주장이 ㉠이라고 생각한다.

- ① 인간을 억압하는 외적 규범이 예임을 부정하고 있다.
- ② 이익만을 고려하면 오히려 해가 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가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 ④ 예가 본성에 부합되므로 유익하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다.
- ⑤ 외적 강제보다 이익을 더 중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32.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3.06.16]

모든 사람은 똑같은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제(齊)나라 사람은 의(義)롭고 진(秦)나라 사람은 의롭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은 그 성정(性情)에 맡겨 제멋대로였고 예(禮)와 의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 (중략) ... 전설적인 말(馬)들도 처음부터 하루에 천리(千里)를 달리지는 못했다. 반드시 앞에서는 재갈과 고삐, 뒤에서는 채찍질, 위에서는 기수의 역할이 있는 후에야 천리를 달릴 수 있었다.

- 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른 수양으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② 예(禮)를 통해 준비 친소(尊卑親疎)의 구별을 없애야 한다.
- ③ 선(善)도 악(惡)도 없는 본성이 선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 ④ 본성에 내재한 선(善)의 실마리를 잘 보존하고 확장해야 한다.
- ⑤ 상과 벌의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도덕적 타락을 예방해야 한다.

33.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06.18]

갑: 어진(仁) 사람이 하는 일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로움을 없애는 데 힘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樂)을 비난하는 이유는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백성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성인(聖人)과 지혜를 버리면 큰 도둑이 없어진다. 성인이 만든 법을 없애면 백성들은 서로 의논을 하게 된다. 육률(六律)의 가락을 흐뜨려 놓고, 피리와 거문고를 불태워 없애면, 천하 사람들의 귀가 비로소 밝아질 것이다.

- ① 갑은 인(仁)을 가족에서부터 사회로 확장시킬 것을 강조한다.
- ② 을은 무위의 삶을 위하여 감각에 의거한 가치 판단을 중시한다.
- ③ 갑은 예악(禮樂)이 비생산적이라고, 을은 인위적이라고 비판한다.
- ④ 갑, 을은 문물과 법제(法制)를 통해 천하의 이익을 추구한다.
- ⑤ 갑, 을은 예악이 악한 성정(性情)을 더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번외. 롤스 옛기출이 궁금하다면 볼 것]

34.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3.09.03]

가상적 상황에 놓인 합리적 당사자들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고려하는 원리에 합의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여건을 향상시킨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의 유리한 조건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① 가상적 상황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고려한다.
- ②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 ③ 정의로운 사회에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기본적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만 제한된다.
- ⑤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위협을 감수한다.

35.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3.09.14]

상과 형벌에 무게가 있는 나라는 강하고, 상과 형벌이 가벼운 나라는 약합니다. 권력이 한 곳에서 나오는 나라는 강하고, 권력이 두 곳에서 나오는 나라는 약합니다. 백성이 본래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군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나라는 강하고 사랑하지 않는 나라는 약합니다. 이것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 ① 통치의 요체인 법(法)과 술(術)로써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 ② 성인이 제정한 규범인 예(禮)를 모두가 실천해야 한다.
- ③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 ④ 타고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상벌을 제정해야 한다.
- ⑤ 무위의 통치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36. 다음은 어느 고대 중국 사상가의 글이다.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은? [13.11.03]

“훌륭한 정치란 어떤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훌륭한 왕은 자신의 공적이 온 세상에 미쳐도 자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며, 백성은 그를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란 베풀어지고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만물을 각기 만족시키는 것이다.”

- ① 허심(虛心)을 통해 물아 일체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한다.
- ② 오감(五感)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지식의 확실성을 추구한다.
- ③ 옳고 그름의 분별을 위해서 자신의 주관을 버릴 것을 강조한다.
- ④ 훌륭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의(仁義)의 덕성을 중시한다.
- ⑤ 도덕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익을 서로 나눌 것을 강조한다.

[번외. 롤스 옛기출이 궁금하다면 볼 것]

3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3.11.07]

(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순수한 가상적 상황은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의의 원칙은 정부의 형태나 분배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나)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라고 가정하라, 그러면 그 당사자는 ㉠ ○ 정의의 원칙이 적용된 사회를 가정하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

	㉠	㉡
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원칙에 합의한다.	모든 사람에게 직책과 지위의 기회가 개방된다.
②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를 모른 채 원칙에 합의한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도 정당화된다.
③	자신이 처하게 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다.	소득의 균등한 분배가 보장된다.
④	자기가 아닌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배려한다.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간다.
⑤	자기의 능력을 모른 채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각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분배가 이루어진다.

38.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3.11.08]

본래 백성은 이기적이다. 군주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게으른 자에게 벌을 주면 백성은 게으르지 않게 된다. ... (중략) ... 군주가 백성을 좋아하지도 않고 백성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면서 군주 자신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법은 다스림의 시작이고, 군주는 백성의 근원이다. 군주가 맑으면 백성도 맑고, 군주가 흐리면 백성도 흐리게 된다.

- 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禮)로 통치해야 한다.
- ② 신하와 백성을 조종하기 위해 법과 술(術)로 통치해야 한다.
- ③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인이 무위(無爲)로 통치해야 한다.
- ④ 백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아 겸애(兼愛)로 통치해야 한다.
- ⑤ 선천적인 도덕성을 확충하여 인(仁)의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

39.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3.11.19]

갑: 성인은 남이 선하게 대해 주길 바라지 않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을 쓰며,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에 힘쓰고 덕(德)에 힘쓰지 않는다.

을: 성인은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롭게 할 것을 바라는 천(天)을 통치의 법도로 삼고, 비용만 많이 들고 백성들의 이익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병: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고, 선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 없이 대하며,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분별심을 갖지 않는다.

<보 기>

ㄱ. 천하에 이로운 것[利]이 곧 의로운 것[義]이라고 여기는가?
 ㄴ. 타고난 친애(親愛)에 기초한 인(仁)의 실천이 필요한가?
 ㄷ. 충효(忠孝)와 같은 도덕 규범을 혼란의 원인으로 보는가?
 ㄹ. 예(禮)와 악(樂)의 번성을 통한 도덕 사회의 실현을 강조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번외. 윤사 선택자들은 풀어보면 좋은 문항]

40. 갑, 을 사상가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이의신청 답변 [09.09.14]

갑: 무절제하게 생활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자. 만약 방종한 생활이 아닌 절도 있는 생활을 했더라면, 그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물론 한 번의 절제 있는 행위를 통하여 절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을: 그 자체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물론 감정의 적절한 절제를 선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그러한 절제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훨씬 더 위험스러운 냉혈한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보 기>

ㄱ. 갑은 이성에 의한 욕구의 제거를 강조한다.
 ㄴ. 을은 도덕 원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동기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ㄷ. 갑은 습관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을은 부정한다.
 ㄹ. 갑, 을은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의지를 중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1.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9.08]

갑: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선(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지라도 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갑: 당신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경우나 모든 인간에 대해 유익하지 않은 것을 과연 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을: 아니죠. 선이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인간 몸의 외부에 대해서는 좋기도 하지만, 인간 몸의 내부에 대해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 ① 갑은 실용성을 참된 지식의 기준으로 본다.
- ② 갑은 각자가 지각한 것이 지식의 척도가 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규정은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유덕함이란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의 부재를 악의 원인으로 본다.

4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11.06.08]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 있으며,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도 거짓일 수 있다.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발생한 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만이 확실할 것이다.

- ① 진리의 보편적 기준은 실용성에 있다.
- ② 의지의 역동적 힘이 세계의 본질이다.
- ③ 객관적인 경험 세계가 진리 추구의 출발점이다.
- ④ 확실한 지식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다.
- ⑤ 참된 지식의 토대는 사유 능력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

47.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11.01]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게 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④ 사성제(四聖諦)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私欲)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48.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11.01]



- ① 효제(孝悌)와 충서(忠恕)를 실천하고자 한다.
- ② 무명(無明)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 ③ 깨달음(菩提)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 ④ 문명을 배격하고 무위자연의 도(道)를 따르고자 한다.
- ⑤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 「순자의 성악설」

49. 갑, 을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5.09.17]

갑: 굽은 나무는 도지개를 대고 불에 쪼면 곧게 펴지며,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난 뒤 날카로워진다. 사람의 본성도 악하니 스승의 가르침[師法]이 있어야 바르게 되며, 예의(禮義)로써 지도해야 잘 다스려진다.

을: 오리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 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 주면 아픔이 따른다. 본래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래 짧은 것은 늘어서는 안 된다. 인위[人]로써 자연[天]을 결코 해쳐서는 안 된다.

<보 기>

- ㄱ. 예의(禮義)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 ㄴ. 상벌(賞罰)로써 이기적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본다.
- ㄷ.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ㄹ. 교화(教化)를 통해 인간 본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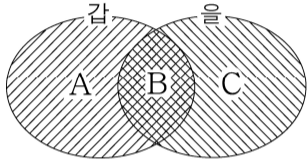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09.04]

(가)	<p>갑: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한 그릇의 밥과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더라도, 모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는다. 현자(賢者)는 이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p> <p>을: 예(禮)는 몸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스승(師)은 예를 바르게 하는 자이다. 예가 없으면 어떻게 몸을 바르게 하고,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예가 옳은지 알겠는가? 성정을 바로잡아, 정감이 예를 편안히 여기고, 지혜가 스승과 같아진다면 성인(聖人)일 것이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① A: 군주는 인의의 도덕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A: 본래 마음 밖에 있는 의를 실천하여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 ③ B: 성인과 일반 백성은 모두 동일한 본성(性)을 갖고 태어난다.
- ④ C: 하늘을 도덕의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 ⑤ C: 식욕(食欲)과 같이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를 다스려야 한다.

5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7.06.12]

(가)	<p>갑: 자연[天]은 안에 있고, 인위[人]는 밖에 있으며, 덕(德)은 천에 있다. 천과 인의 일을 잘 가려 천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인으로 천을 멸하지 않고, 고의로 명(命)을 망치지 않으며, 명성을 위해 덕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본성으로 돌아가게 된다.</p> <p>을: 길흉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善)을 쌓는 데 있다. 천과 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가 인의(仁義)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변화하여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조화하게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고 태어난다.
 ㄴ. B: 자연적인 본성과 인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ㄷ. B: 예(禮)는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사회규범이다.
 ㄹ. C: 인간의 본성이 사회악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7.09.02]

갑: 예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자포(自暴)] 자이고, 자신이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자기(自棄)] 자이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치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을: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성품[性]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이익이 의로움을 이기면 난세가 되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누었다. 사(士) 이상의 계층이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백성과 생업을 경쟁하지 않으니, 백성이 재물에 궁핍하지 않게 되었다.

<보 기>

ㄱ. 갑은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ㄴ. 갑은 인의가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ㄷ. 을은 군주가 예로 다스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을은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3.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09.02]

나무가 곧아 먹줄에 맞는다 해도 구부러야 바퀴가 되고, 쇠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켜야 인간은 비로소 선해진다. 사람들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보 기>

ㄱ. 인간은 누구나 노력[僞]을 통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ㄴ. 본성의 선한 단서를 확충하여 도덕적 덕을 실현해야 한다.
 ㄷ. 인의(仁義)는 배움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ㄹ. 선왕의 가르침을 익히기보다는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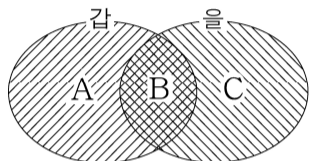
54.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9.06]

갑: 인(仁)은 하늘이 주는 벼슬이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도 막지 않는데 인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는 것이다.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 예(禮)는 성인이 작위[僞]를 일으켜 만든 것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이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훼손된다. 엄한 명령과 형벌만으로는 위세를 떨칠 수 없다.

- ① 갑: 인은 천소의 구별이 없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이다.
 ② 갑: 인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에 측은지심을 형성해야 한다.
 ③ 을: 예는 타고난 성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현의 가르침이다.
 ④ 을: 예는 욕망 조절의 기준이자 욕망 충족의 한계를 제시한다.
 ⑤ 갑, 을: 인과 예로 다스림으로써 백성의 성(性)을 교화시킬 수 있다.

55.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1.02]

(가)	<p>갑: 군자와 소인의 본성[性]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化性起偽] 때문이다. 인위를 일으키면 예의가 생겨난다.</p> <p>을: 군자는 마음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본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마음을 보존한다. 인으로써 마음을 보존하고 예로써 마음을 보존한다. 어진 자는 남을 사랑하고 예가 있는 자는 남을 공경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군자는 소인과 달리 타고난 본성에 순응하지 않는다.
 ㄴ. B: 사람은 누구나 교육과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될 수 있다.
 ㄷ. B: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같지 않다.
 ㄹ. C: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타고난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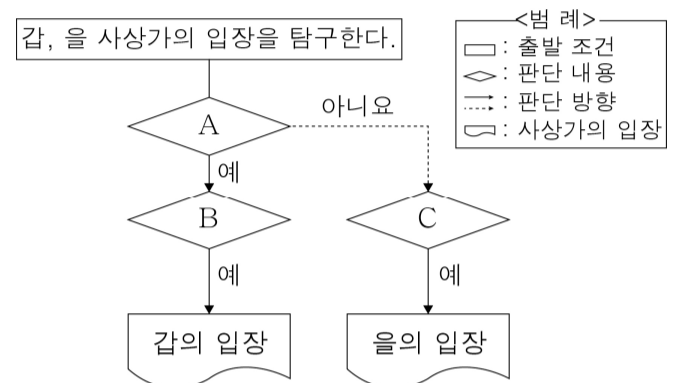
56.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2.06.04]

갑: 입이 맛을 좇고 눈이 색을 좇음은 본성[性]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명(命)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본성이라 하지 않는다. 부자 사이에 인(仁)이 있고 군신 사이에 의(義)가 있음은 모두 명이지만 그것을 실현함은 본성에 달려 있으니 군자는 그것을 명이라 하지 않는다.

을: 사람에게 스승[師]과 법도[法]가 있다면 큰 보배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이 없다면 큰 재앙과 같다.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본성을 존중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면 노력을 쌓는 것[積]을 존중하게 된다. 스승과 법도는 노력을 쌓는 데서 얻는 것이 본성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 ① 군자와 소인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가?
 ② 인간은 인식 능력 및 실천 능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③ 인간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인과 의의 덕성을 실현해야 하는가?
 ④ 인간은 누구나 마음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⑤ 소인은 지극히 크고 곧은 도덕적 기원(浩然之氣)을 길러야 하는가?

57.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09.04]

(가)	<p>갑: 군자는 소인과 달리 그 본래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아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짐승들이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곳을 멀리한다.</p> <p>을: 군자는 본래 소인과 마찬가지로 영예와 이익을 좋아하고 치욕과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본성에 따르지 않고 도리[道]를 추구한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타고난 본성에 따른 행동일지라도 악할 수 있는가?
 ㄴ. B: 백성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ㄷ. C: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는 예(禮)로써 가능한가?
 ㄹ. C: 누구나 하늘이 부여한 예를 배우면 교화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불교의 석가모니」

58. 갑, 을은 동서양의 사상가들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06.04]

갑: 색(色)은 무상(無常)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은 곧 내(我)가 아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에 집착하게 된다.

을: 동물에게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인간에게는 이 의지가 표상에 의해 많이 덮여 있다.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는 식물에게도 나타난다.

- ① 갑은 모든 것은 변하므로 실체(實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② 갑은 만물의 관계성을 직관하여 이타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금욕(禁慾)을 통해 영혼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윤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삶이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본다.

※ ‘을’은 당시 윤사 교육과정에 있었고, 생운 자살론에 나오는 쇼펜하우어임.

59.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11.05]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法]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곧 진리를 보며, 진리를 보는 자는 곧 연기를 본다.
(나)	
	<p>[가로 열쇠]</p> <p>(A): 인위적이거나 강제적 작위가 없음을 나타내는 말 예) 노자의 ‘○○ 자연’ 사상</p> <p>(B): 외부 사물과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 예) 장자의 ‘□□ 일체’ 사상</p> <p>[세로 열쇠]</p> <p>(A): …… 개념</p>

- ①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는 어떠한 ‘나’ 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 ②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될 만한 ‘나’ 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③ 불멸하는 ‘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기 위해 제기된 말이다.
- ④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 버리라는 말이다.
- ⑤ 모든 존재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져 독자적 ‘나’가 없다는 말이다.

60.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11.15]

(가)	<p>갑: 죽음은 부스럼이 사라지거나 증기가 터지는 것과 같고, 삶은 몸에 균살이 붙거나 흙이 달리는 것과 같다. 진인(眞人)은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속세를 벗어나 한가롭게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닌다.</p> <p>을: 죽음은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이들을 휩쓸어 간다. 오온(五蘊)의 결합인 몸이 아지랑이처럼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 몸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죽음을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A: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ㄴ. B: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슬퍼해야 한다. ㄷ. B: 현세의 삶에서 쌓은 업(業)에 의해 내세의 삶이 결정된다. ㄹ. C: 삶과 죽음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61.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11.17]

갑: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나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6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1.16]

색(色)을 즐거워하지 말고 색을 찬양하지 말며 색을 취하지 말고 색에 집착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비구가 그럴 수 있다면, 곧 색을 즐거워하지 않게 되어 마음이 해탈하기 때문 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오온(五蘊)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오온의 실상(實相)을 바르게 알아야 해탈할 수 있다. ㄴ. 만물은 무상(無常)하며 현실적 삶 그 자체는 고통이다. ㄷ. 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ㄹ. 모든 고통의 발생과 소멸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6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09.02]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苦],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道]을 말한다.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하고 참고 견디어 바른 생각과 바른 앎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① 욕망을 충족시켜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 ②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③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 ④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 ⑤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6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12.04]

- 색(色)은 물방울 같고 수(受)는 물거품 같으며 상(想)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고 행(行)은 파초와 같으며 식(識)은 허깨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 고통[苦], 그 고통을 발생시키는 원인, 고통을 남김없이 다 없앤 상태, 고통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바른 도(道),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으니라.

- 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없애 고통 없는 경지[涅槃]로 나아가야 한다.
- ② 고통의 원인을 모두 제거해도 윤회(輪廻)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 ③ 고통을 없애려면 여덟 가지 수행 방법[八正道]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오온(五蘊)의 참모습을 파악하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연기(緣起)를 바르게 통찰하면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킬 수 있다.

65.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06.01]

제자들에게

제자들이여! 식(識)이 탐욕을 떠나면 색(色)·수(受)·상(想)·행(行)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임이 끊어지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게 된단다. 그리하여 식은 행동하지 않고, 그 뒤에는 머무르며, 그 뒤에는 만족할 줄 안단다. 이처럼 해탈하게 되면,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열반을 자각하여 '나의 생은 다하였고 범행(梵行)은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알게 된단다. ... (후략) ...

- ① 탐욕, 성냄, 어리석음[三毒]을 제거하여 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 ② 나와 세계의 관계성을 부정하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여덟 가지 바른 수행[八正道]을 통해 불변의 자아를 형성해야 한다.
- ④ 내세에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과 입으로 많은 업(業)을 쌓아야 한다.
- ⑤ 열반의 결과인 무명(無明)에 도달하기 위해 바른 생각에 힘써야 한다.

6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09.02]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는 무상하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관찰하면 그것이 바른 관찰이다. 바르게 관찰하면 곧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며,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것을 괴로움이 사라진 해탈(解脫)이라고 한다.

- ① 올바른 수행을 위해 계율, 선정, 지혜를 모두 없애야 한다.
- ② 중생의 삶이 고통은 아님을 분별적 인식으로 깨달아야 한다.
- ③ 오온(五蘊)이 무상함을 깨달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깨달음을 얻기 위해 번치 않는 실체가 존재함을 관찰해야 한다.
- ⑤ 연기의 원리에 따라 만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

6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06.04]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緣]으로 행(行)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識)이 있으며 식을 조건으로 정신과 물질[名色]이 있고 ... (중략) ... 생(生)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있다. 이와 같이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 ① 영원한 본성을 가진 자아만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 ② 무상(無常)한 것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인연(因緣)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다.
- ④ 오온(五蘊)으로 구성된 존재만이 고정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⑤ 인간은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6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1.16]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四聖諦]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無明)에 가려지고 욕망에 묶여 내달리고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오기도 한다. 이것은 막대기를 허공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부터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부터 떨어지는 것과 같다.

<보 기>

- ㄱ.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ㄴ.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業)의 영향을 받는다.
- ㄷ.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 ㄹ.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生)으로 윤회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9.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09.01]

스승님,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구나.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인(因)과 연(緣)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법(法)을 체득해야 한단다.

- ① 자연을 법칙 삼아 도(道)를 따르는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② 충(忠)과 서(恕)를 실천함으로써 인(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③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만물이 상호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쳐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 ⑤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集義] 도덕적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4. 「도가의 노자」

70.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1.15]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니 애처롭다. 사람은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을 알지만, 마음을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른다.
 을: 최상의 덕(德)은 행함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하급의 덕은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인(仁)은 행하되 무엇을 위하여 함이 없다. 최상의 의(義)는 행하면서 무엇을 위해 한다. 최상의 예(禮)는 행하되 응대함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한다.

- ① 예(禮)의 규범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하는가?
- ② 인위적인 노력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 ③ 선악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가?
- ④ 도(道)의 실현을 위해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가?
- ⑤ 인의(仁義)의 실천을 통해 덕(德)이 실현된다고 보는가?

71.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09.03]

갑: 으뜸의 덕(德)은 작위하는 바가 없고 아무런 의도도 지니지 않는다[無以爲]. 으뜸의 인(仁)은 작위하는 바는 있지만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는다. 으뜸의 의(義)는 작위하는 바도 있으며 어떤 의도도 지니고 있다[有以爲].
 을: 누구나 차마 해서는 안 되는 마음[所不忍]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 인이다. 누구나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所不爲]이 있다. 이것을 미루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이르는 것이 의이다.

- ① 인의가 본래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임을 무시하고 있다.
- ② 인의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③ 인의가 소박한 본성이 상실되어 나타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인의가 결과의 실용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⑤ 인의가 선천적으로 내재된 도덕성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13~14]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6.09.3~4]

위대한 덕(德)의 모습은 도(道)를 따르는 데서 나오지요. 만물의 근본인 도는 참으로 황홀할 따름입니다.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쓰임새이지요.

성인(聖人)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지극히 크고 올곧은 기(氣)를 길러, 도탄에 빠진 천하를 도(道)로써 구합니다. 그 기는 의(義)와 도가 배합된 것입니다.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인간이 도를 넓혀가는 것이지, 도가 인간을 넓혀 가는 것이 아닙니다.



72.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도를 인간의 길흉(吉凶)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로 본다.
- ② 을은 도를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위(無爲)한 것이라고 본다.
- ③ 병은 도를 겸허와 부쟁의 덕을 갖춘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본다.
- ④ 갑, 을은 도가 사라진 것이 시비(是非)의 분별 때문이라고 본다.
- ⑤ 을, 병은 도를 인의(仁義)의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라고 본다.

7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된 까닭은 인의(仁義)와 법도(法度)를 바르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인의와 법도는 배워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인위(人爲)의 결과이다. 본성과 인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 ①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본성을 확충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② 예법을 통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임을 부인하고 있다.
- ④ 본성을 따를 때 도덕적 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
- ⑤ 본성은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부정하고 있다.

7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7.06.04]

(가) 갑: 참된 도(道)에는 이름이 없다. 도는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도를 부릴 수는 없다. 제후와 왕들이 이를 터득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바로 서지 않아서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① A: 사람들이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② B: 도(道)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가?
- ③ B: 사람들이 충서(忠愬)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 ④ C: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 ⑤ C: 인의(仁義)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

7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11.03]

도(道)는 흘러 넘쳐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도는 말이 없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 하지 않는다.

- ① 도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 ② 도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 ③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도 자체는 사물이므로 인간의 언어로써 규정될 수 있는가?
- ⑤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인가?

5. 「도가의 장자」

76.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6.06]

내 생명은 유한하고 지식은 무한하니,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추구하면 위태롭게 된다. 선(善)을 행하여 명성을 가까이 하지도, 악(惡)을 저질러 형벌에 가까워지지도 말아야 한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것을 떳떳함으로 삼으면 몸을 보존하고 생명을 온전히 하여 수명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

- ① 경험적 인식을 통해 불변적 자아의 영원성을 깨닫는다.
- ② 이성적 분별을 통해 주관적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린다.
- ③ 모든 감각이나 사유 능력을 발휘하여 사물의 변화에 임한다.
- ④ 사물의 소박한 본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한다.
- ⑤ 확일적 평등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인식의 상대성을 초월한다.

77. 다음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9.03]

작은 새가 대붕(大鵬)의 비상을 비웃으며 “우리는 힘껏 날아 큰 나무에 오르려고 해도 이르지 못해 땅에 떨어진다. 어떻게 9만 리나 날아올라 남쪽으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하물며 교외로 나가는 사람도 음식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은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거늘, 이 작은 새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으며 작은 지혜[小知]가 어찌 큰 지혜[大知]를 알겠는가?

- ① 자연의 질서에 위계를 부여하는 성인의 역할을 중시한다.
- ② 자연 친화적 삶을 위해서 이론적 지식의 확충을 중시한다.
- ③ 차별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정신의 절대 자유를 추구한다.
- ④ 경험의 축적을 통해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한다.
- ⑤ 신인(神人)이나 군자가 되기 위해서 덕성의 함양을 추구한다.

78. 다음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1.10]

들판에 커다란 가죽나무 하나가 있었다.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며 외면해 버렸다. 그러나 그 덕분에 가죽나무는 도끼에 찍히는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하는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다했다. 쓸모 없음[無用]이 곧 쓸모 있음[用]임을 아는 것이 큰 앎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인가?

- ① 사물의 용도를 잘 파악하는 실용적인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 ② 자연을 있는 대로 보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③ 가치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④ 자연의 진정한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 ⑤ 시비 판단의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절대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79.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1.03]

성인(聖人)은 그 은혜가 만대(萬代)에 미치는 경우에도 사람을 각별히 사랑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외부 사물을 그 자체에 맡겨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자는 성인이 아니다. 친소(親疏)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자는 인자(仁者)가 아니고, 이해(利害)를 따지는 자는 군자가 아니며, 명예를 좇아 참된 자아를 잃는 자는 선비가 아니다.

- ① 군주는 인정(人情)에 따라 상벌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② 성인은 시비(是非) 논변을 초월하고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 ③ 군자는 사단(四端)을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선비는 예법(禮)에 따라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
- ⑤ 인자는 차별 없는 사랑(兼愛)으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80.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06.12]

(가)	<p>갑: 곱자에 의지하여 바로잡으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깎아내는 것이고, 노끈으로 묶어 견고하게 하는 것은 타고난 덕(德)을 해치는 것이며, 예악(禮樂)을 행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p> <p>을: 버드나무의 본성을 해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거스른 후에 인의(仁義)를 행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p>
(나)	

- ① A: 인의(仁義)는 사람다움을 해치는 인위적 도덕규범이다.
- ② A: 일체의 구속을 잊어[坐忘] 지인(至人)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③ B: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C: 본성[性]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삶이다.
- ⑤ C: 항산(恒産)이 없어도 본심을 잃지 않아야 선비라 할 수 있다.

8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6.09.06]

(가)	<p>갑: 다름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 처럼 멀지만, 같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모두 하나이다. 성인(聖人)은 덕(德)에서 나오는 조화의 경지에서 자유롭게 소요(逍遙)한다.</p> <p>을: 모든 것은 시비(是非)의 정해짐이 없고, 선(善)이 있는 곳에 불선(不善)이 있고, 얕이 있는 곳에 알지 못함이 있다. 성인의 지혜도 아래에서 보면 지혜이지만, 위에서 보면 무명(無明)이다.</p>
(나)	

- ① A: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 ② B: 백성의 무지(無知)를 덕으로 교화하는 데 힘써야 하는가?
- ③ B: 수양을 통해 자신이 고집하는 앎[知]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④ C: 참된 지혜는 인간의 말과 글[言說]로써 고정될 수 있는가?
- ⑤ C: 참된 자아를 깨달을 때 무명(無明)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 '을'은 원효임.

82. 다음 동양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11.10]

흰기러기는 하얗게 되겠다고 매일 목욕하지 않고, 까마귀는 까맣게 되겠다고 매일 먹물을 칠하지 않는다. 흑백의 우열은 논변할 가치가 없고, 명예를 다룬다고 위신이 서는 것도 아니다. 샘이 말라 물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면, 물고기들은 거품으로 서로를 적셔 주면서 삶을 도모하지만, 이는 강과 호수 안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는 것만 못하다.

<보 기>

ㄱ.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자신의 덕(德)을 가지고 태어난다.
 ㄴ. 누구나 좌망을 통해 도(道)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ㄷ. 자연적 본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양을 해야 한다.
 ㄹ. 사물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 간에 귀천(貴賤)의 구분이 생긴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83.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11.11]

갑: 그림쇠는 동그라미, 곱자는 네모꼴, 떡줄은 곧음, 저울은 공평함의 표준이듯 예(禮)란 올바른 도(道)의 기준이다. 군자는 스승과 법도(師法)를 따르고 예의를 실천하는 자이며 소인은 본성을 좇아 멋대로 행동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이다.

을: 동그라미를 그리는 그림쇠, 네모꼴을 만드는 곱자, 직선을 긋는 떡줄을 빌어 사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드는 것은 본성을 해친다. 예악에 따라 몸을 굽히고 인의(仁義)를 좇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을 잃게 한다.

- ① 갑: 예를 기준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재화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② 갑: 조화로운 사회를 위하여 구성원 각자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을: 인의를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며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④ 을: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본성을 해치는 예악을 거부해야 한다.
- ⑤ 갑, 을: 성(性)을 인위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樸)로 보아야 한다.

84.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12]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에 머물고,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또한 만물을 잘 자라게 해 주면서도 가지려 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어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인(聖인)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시비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또한 덕의 조화[和] 속에서 마음을 노닐게[遊心] 합니다.



갑



을

- ① 갑: 성인은 물처럼 낮은 곳에 머물면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 ② 갑: 성인은 사람들이 공적을 쌓아 널리 이름을 떨치도록 돕는다.
- ③ 을: 성인은 도(道)의 관점에서 시비와 선악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 ④ 을: 성인은 각각의 자연적 특성을 가진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성인은 예(禮)를 가르쳐서 백성의 본성이 실현되도록 한다.

8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09.05]

갑: 지인(至人)은 기(氣)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 응대하되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물과의 대립을 이겨내고 상처받지 않는다.

을: 성인(聖人)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활한 지식과 말재간을 버리도록 하여 그들의 이로움을 크게 늘린다. 또한 인의(仁義)를 버리도록 하여 효도와 자애를 회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묘한 재능을 버리도록 하여 세상에서 도적이 사라지게 한다.

- ① 갑: 마음을 깨끗이 비워 절대 자유를 누려야 한다.
- ② 갑: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선악미추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③ 을: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언어로 규정할 수는 있다.
- ④ 을: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 도와 덕이 이루어졌다.
- ⑤ 갑, 을: 성인은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

86.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1.12.14]

갑: 해와 달은 본래부터 밝고, 수목(樹木)은 본래부터 서서 자란다. 자연의 덕을 본받아 행하고, 자연의 도(道)를 따르기만 하면 되지 애써 인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을: 선비[士]가 거쳐해야 할 곳은 인(仁)이며,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다름 아닌 의(義)이다. 인에 거쳐하고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갖추어진다.

- ① 언어[言]로 도에 이를 수 있고 인위로 인의를 형성할 수 있는가?
- ② 이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 누구나 따라야 할 도가 존재하는가?
- ③ 도를 행하면 분별적 지식이 늘어나고 타고난 덕성이 함양되는가?
- ④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선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 ⑤ 인의는 인간 본성을 어지럽히고 예(禮)는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가?

87.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06.06]

성인(聖人)은 무위(無爲)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만물이 흥성하게 일어나지만 자랑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功)을 이루고도 자기 것으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인은 마음을 자유롭게 노니므로[遊],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인의(仁義)를 교제 수단 정도로 여깁니다. 성인은 꺾이지 않으니 지식이 어찌 필요하며, 잃음이 없으니 얻음이 어찌 필요하겠습니까!



갑



을

- ① 갑: 시비를 명확하게 분별하여 남과 다투지 말아야[不爭] 한다.
- ② 갑: 경(敬)의 실천을 통해 흐르는 물처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 ③ 을: 만물의 귀천을 구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 ④ 을: 나라의 규모를 크게 하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여야 한다.
- ⑤ 갑, 을: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예법(禮)을 제정해야 한다.

8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09.02]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이것과 저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과 저것이 짝을 얻지 못함을 일러 도(道)의 중심축[樞]이라고 한다. 문의 중심축만이 고리의 가운데 걸려 무궁한 변화에 응대한다. 그러므로 옳게 여기는 것도, 그르게 여기는 것도 무궁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별하지 않는 지혜로 살피는 것이 가장 좋다.

- ① 감각과 마음으로 참된 지식을 얻어야만 한다.
- ② 무위의 덕으로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③ 인간은 만물과 하나이므로 절대적 자유는 불가능하다.
- ④ 도에 따르지 않아도 자신의 덕은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 ⑤ 모든 사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89.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11.04]

갑: 열반이란 탐욕[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이 멀하여 모든 번뇌가 영원히 멸한 것이다. 열반을 얻는 도(道)가 곧 팔정도(八正道)이니 닦고 익히며 또 닦고 익혀야 한다.

을: 지인(至人)은 천지 본연의 모습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여 무한의 세계에 노니는[遊] 자이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따라 허둥지둥하지 않는다.

-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 ② 갑: 열반에 이르러도 무명(無明)에서 비롯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 ③ 을: 도는 만물의 근원일 뿐 만물에 내재하지 않는다.
- ④ 을: 만물은 본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우열이 있다.
- ⑤ 갑, 을: 자기중심적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수양이 필요하다.

90. 고대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06.13]

갑: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세련된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을: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이 좌망(坐忘)이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 ① 갑은 하늘과 땅이 자연의 도를 따르기에 어질다고[仁] 본다.
- ② 갑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가 영원한 도[常道]라고 본다.
- ③ 을은 사람은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하늘이 정해 준 예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91. 다음은 고대 중국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9.01]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道)가 행해질 때는 모두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인위적인 덕 따위는 쓸 곳이 없습니다. 인(仁)과 의(義)는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의(仁義)란 사람의 참된 본성이 아닙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듯이 인(仁)과 의(義)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뿐입니다.



- 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義]을 쌓아야 한다.
- ②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한다.
- ③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연기(緣起)의 원리를 깨달아 못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⑤ 악한 본성을 인위적으로 선하게 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3.11.04]

갑: 도(道)는 두루 통(通)하여 만물과 하나를 이룬다. 따라서 흠어짐은 곧 이롭으며 이롭음은 곧 어그러짐이다. 진인(眞人)은 만물이 통하여 하나임을 알아 그 자연스런 쓰임에 맡겨 둔다.

을: 도는 낱고 덕(德)은 기르니, 만물이 나타나서 형세[勢]로써 완성된다. 따라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김은 명령하지 않아도 늘 스스로 그러하다[自然].

<보 기>

- ㄱ. 갑: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물아일체에 도달할 수 없다.
- ㄴ. 을: 제물(齊物)을 통하여 정신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다.
- ㄷ. 을: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으며 성인(聖人)도 어질지 않다.
- ㄹ. 갑과 을: 도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면서 만물에 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3.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4.06.11]

(가)	<p>갑: 마음[心]에서 언지 못하면 기(氣)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잘 길러야 한다.</p> <p>을: 마음으로 듣지 말고 기로 들어야 한다. 기는 텅 비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道)만이 텅 빈에 머무니, 텅 비게 하는 것이 심재(心齋)이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p>Flowchart: A (Decision) -> 예 -> B (Decision) -> 예 -> 갑의 입장; A -> 아니요 -> C (Decision) -> 예 -> 을의 입장.</p> <p>Legend: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보 기>

- ㄱ. A: 잃었던 마음[放心]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 ㄴ. B: 의로운 행위를 쌓아서 도덕적 기개를 키워 나가야 하는가?
- ㄷ. C: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물아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ㄹ. C: 기(氣)로써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09.18]

만일 천지 본연의 올바름[正]에 올라타고서 기운의 변화를 다스려 무한한 세계에서 노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것에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유에서 벗어나고[無己], 신령스러운 사람은 공적을 내세움이 없고[無功], 성인(聖人)은 세속적 명예에 개의치 않고[無名]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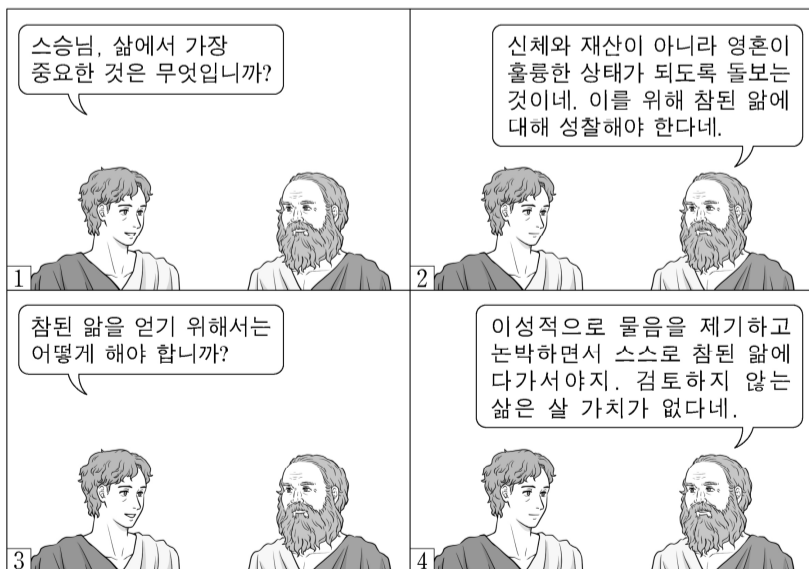
<보 기>

- ㄱ. 심재(心齋)로써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노닐어야 한다.
- ㄴ. 어떠한 얽매임도 없이 자기 자신마저도 잊어야[忘] 한다.
- ㄷ. 세속을 벗어나 천명(天命)을 도덕성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 ㄹ. 참된 지혜로써 만물의 우열을 판별하고 명예를 버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윤리적 보편주의자인 소크라테스」

95.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06.01]



- ① 정치적 명예에 필요한 수사학과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성찰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를 분별해야 한다.
- ③ 마음의 평온을 위해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④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진리는 상대적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입장들을 존중해야 한다.

7.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상 국가론」

96.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11.15]

(가)

- ‘태양은 보이는 것들에게 보임의 힘을 주고 그것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 좋음[善]’은 인식되는 것들에게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재할 수 있게 한다.
- 나라 안에 세 부분이 있듯이 모든 개인의 영혼 안에도 세 부분이 있다. 인간이 올바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는 방식과 같다.

			(A)		
	(B)				

(나)

[가로 열쇠]
(A): 일을 해 나갈 때 차례로 거쳐야 하는 순서와 방법
예) 롤스의 ‘순수 ○○적 정의’
(B): 두 사람 이상이 재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
예) 재산 ○○○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이성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발휘되는 기개의 고유한 탁월성이다.
- ② 영혼의 각 부분이 역할을 다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 ③ 명예와 승리를 좋아하는 영혼의 부분에서 드러나는 고유의 덕이다.
- ④ 욕망의 유익과 해악을 헤아리고 계산할 줄 아는 영혼의 탁월성이다.
- ⑤ 영혼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세 부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이다.

97.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06.03]

참주(僭主)는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아침과 굴종을 하며 산다는 점에서 진짜 노예이며, 자신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실로 가난한 자다. 그의 영혼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다. 철인왕은 그와 반대되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래서 철인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최선의 이상 국가로 볼 수 있다.

- ①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 ② 이상 국가에서 세 계층은 모두 절제의 덕을 갖추고 있다.
- ③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④ 이상 국가에서는 전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강조된다.
- ⑤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98. 사회사상가 갑,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12.13]

갑: 유토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건전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긴다. 물자가 풍족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을: 올바른 국가에서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일을 잘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린다.

- ① 갑: 이상 사회의 사람들은 노동 시간 이외의 여가를 향유한다.
- ② 갑: 이상 사회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검소한 삶을 산다.
-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좋음의 이데아가 국가 통치의 준거가 된다.
- ④ 을: 이상 사회의 각 계층은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룬다.
- ⑤ 갑, 을: 이상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노동에 따른 사유 재산을 보장받는다.

99.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11.13]

국가는 철학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다스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자, 즉 최고 권력자가 진실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지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에게 나쁜 것들을 증식시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정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사랑은 한데 합쳐져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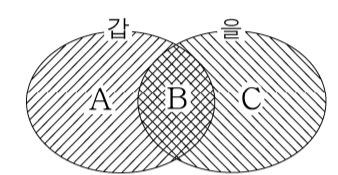
- ① 각 계층이 각자 해야 할 일에 충실한 것이 정의이다.
- ②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이 허용되는 계층이 있다.
- ③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 모두에게 공통된 덕이 있다.
- ④ 국가 전체의 좋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 ⑤ 절제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상 국가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

10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11.12]

갑: 선(善)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을: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 ① 갑: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② 갑: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 ③ 을: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 ④ 을: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
- ⑤ 갑과 을: 선 자체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

101.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4.09.19]

(가)	<p>갑: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한 다음, 이 법을 정의로운 것으로서 공포하고서는, 위반한 자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자로 처벌한다.</p> <p>을: 국가의 각 계층이 자신의 일만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의의 흐릿한 윤곽일 뿐 참된 정의는 아니다. 정의는 자기 자신과 관련되며, 자신 안의 이성, 기개, 욕구가 남의 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ㄱ. A: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
 ㄴ. A: 피지배자의 부정직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로울 수 있다.
 ㄷ. B: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ㄹ. C: 개인의 정의는 외적 규범보다 영혼의 내적 상태와 관련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0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11.05]

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대개는 자신들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서 황금의 자손이, 그 밖의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 ①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② 통치자는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
- ③ 방위자는 교육을 통해 용기의 덕을 쌓고 두려움에 대해 분별한다.
- ④ 생산자가 가진 덕을 다른 두 계층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
- ⑤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10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06.02]

갑: 정의란 지배하는 이들의 이익이다. 지배하는 이들은 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고 한다. 강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므로 정의는 더 강한 자의 이익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을: 정의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 일에 충실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각 계층에 적합한 덕들이 국가 안에 보전된다. 정의는 각자 덕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다.

- ① 갑: 법은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 ② 갑: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 ③ 을: 용기는 기개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와 더불어 용기와 절제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이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

10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09.18]

갑: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

을: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보 기>

ㄱ. 갑: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

ㄴ. 갑: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ㄷ. 을: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8. 「아리스토텔레스」
105. 다음 고대 그리스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6.20]

-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선(善)이라고 부른다. 목적은 무한히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이 있다. 최고선은 곧 행복이다.
- 중용의 덕은 지나침으로 인한 악덕과 모자람으로 인한 악덕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점에서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또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정도로, 마땅한 방식 등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중용은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② 중용의 덕은 행복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③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중용인지 알 수 있다.
- ④ 중용의 덕을 갖추려면 옳은 행위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 ⑤ 어떤 하나의 행위에서 중용의 덕은 하나이고 악덕은 여럿이다.

10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9.09]

갑: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간을 아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간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을: 지혜의 덕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지혜롭다.

- ① 갑은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해야 유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지성적 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③ 을은 영혼의 탁월함만으로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덕이 무엇인지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삶에는 시민으로서의 훌륭한 삶이 포함된다고 본다.

107.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09.16]

갑: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을 알아야 한다. 정의나 용기 등은 지혜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해롭거나 유익하게 된다. 덕이란 유익한 것이므로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을: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성에 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복된 실천을 통해 완성한다.

- ① 갑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덕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습관화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③ 을은 갑과 달리 의지의 나약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08.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11.03]

- 최고선인 행복은 덕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덕은 영혼의 요소에 따라 지성의 덕과 품성의 덕으로 나뉜다.
- 감정이나 행위에 있어서 덕은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러나 심술이나 파렴치, 절도나 살인과 같은 것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 ① 어떤 감정이나 행위들은 중용의 상태를 가질 수 없다.
- ②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욕구가 이성 의해 인도되어야 품성의 덕을 갖추 수 있다.
- ④ 중용의 덕을 함양해야 삶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도덕판단의 기초인 실천적 지혜는 품성의 덕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109.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09.03]

갑: 인간은 말이나 소와 다르게 정신 안에 이성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이다.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의 본질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인간은 이끼나 꽃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나중에는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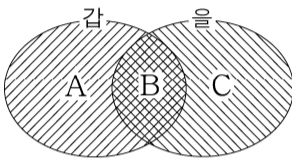
- ① 갑: 인간은 목적 지향적 활동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갑: 지나침과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다.
- ③ 을: 인간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지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 ⑤ 갑, 을: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110.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09.02]

갑: 영혼은 앎을 사랑하는 이성적인 부분, 승리를 사랑하는 기개적인 부분, 돈을 사랑하는 욕구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의 탁월한 상태가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이다.
 을: 영혼은 이성적 부분,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 이성적인 것이 없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성적 부분의 덕은 지성적 덕이고 이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의 덕은 품성적 덕이다.

- ① 갑: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이상 국가를 통치한다.
- ② 갑: 절제는 이상 국가에서 생산자 계층 사람만이 갖추어야 하는 덕이다.
- ③ 을: 최고선(最高善)은 다른 모든 좋음들을 포함하는 완전한 선이다.
- ④ 을: 중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 ⑤ 갑, 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음에 대한 객관적 앎이 있어야 한다.

111.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11.06]

(가)	<p>갑: 덕은 곧 지식이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나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다. 정의든 절제든 용기든 모두 다 지식이다.</p> <p>을: 덕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사람’은 후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반면,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제력 없는 사람’은 후회할 줄은 아는 사람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 기>

- ㄱ. A: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ㄴ. B: 이성과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 ㄷ. B: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 ㄹ. C: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2.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11.02]

사물에 있어서의 중간은 각각의 끝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과 2의 산술적 중간은 6이다. 그러나 인간과 관련해서는 산술적 방식으로 중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과 관련해서는 중간은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것이다. 하루에 6프나*의 식사는 성인 운동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어린 선수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프나(mna): 고대 그리스의 무게 단위

<보 기>

- ㄱ. 중용이 무엇인지 알면 의지가 나약해도 반드시 중용을 실천한다.
- ㄴ. 인간의 최고선으로서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이다.
- ㄷ. 중용은 모든 행위에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 ㄹ. 지성적 덕에 속하는 실천적 지혜로 중용의 상태를 알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3.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06.07]

갑: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인간이다. 인간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이다.

을: 존재하는 것에 대해 보편적 정의를 내려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경건한 것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병: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좋음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여러 탁월성 중에서 최상의 탁월성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 ① 갑은 보편적 진리는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긴다고 본다.
- ③ 병은 실천적 지혜로써 질투에 대한 중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식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병은 을과 달리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114.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12.17]

갑: 선의 이데아에 근거를 둔 절제와 정의는 아름답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반면, 무절제와 불의는 달콤하고 얻기 쉽지만 수치스러운 것이다.

을: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을 행복이라고 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며, 인간 본성에 따라 나오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 ① 갑: 감각 능력을 키우면 영원불변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② 갑: 이데아는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 ③ 을: 지성적 덕과 달리 품성적 덕 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다.
- ④ 을: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알려 주는 품성적 덕이다.
- ⑤ 갑, 을: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통치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115.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중세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06.05]

갑: 인간의 행위들이 추구하는 목적들은 점점 상위의 목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에 이른다. 이 목적은 최고선이다. 그렇다면 최고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을: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 ① 갑: 행복이란 자연적 경향성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 ② 갑: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③ 을: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된다.
- ④ 을: 인간은 스스로 성취한 덕에 의해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⑤ 갑, 을: 덕은 지식과 일치하고 지식으로서의 덕은 행복과 일치한다.

116. 그림의 강연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09.14]

두려워하는 일이나 화를 내는 일은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너무 적게 할 수도 있지만, 둘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 ① 중용은 시기, 질투 등의 감정이 적절히 완화된 품성적 덕이다.
- ② 중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품성적 덕이다.
- ③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형성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품성적 덕이다.
- ④ 중용은 이성의 도움 없이도 실천으로 습관화되는 품성적 덕이다.
- ⑤ 중용은 영혼에서 감정과 욕구를 맡은 부분이 계발된 품성적 덕이다.

117.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06.02]

갑: 정의로운 인간은 참된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잘 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배하고 통솔하며,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목함으로써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을: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① 갑: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 ② 갑: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게 요구된다.
- ③ 을: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 ④ 을: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1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4.09.17]

행복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면, 행복은 최고의 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최고의 덕은 영혼의 부분들 중 최고의 부분, 즉 '지성'이라 불리는 부분이 가지는 덕이다. 이 부분은 영혼의 다른 이성적 부분과 같지 않다.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은 신적이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앎의 대상들 중 최고이다. 지성의 덕을 발휘하는 활동을 '관조'라고 부른다. 따라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들 중 관조적 활동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① 품성적 덕에 따르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 ② 행복은 인간의 이성이 목표로 삼는 유일한 선이다.
- ③ 감정을 담당하는 영혼의 부분은 언제나 이성을 따른다.
- ④ 덕을 발휘하지 못해도 덕의 소유 자체가 행복일 수 있다.
- ⑤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119.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09.06]

(가)	<p>갑: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像)들, 이것들의 실물들,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p> <p>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p>
(나)	

<보 기>

ㄱ. A: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
 ㄴ. B: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
 ㄷ. B: 좋음은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
 ㄹ. C: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9. 「자연법 윤리를 주장한 스토아학파」

120.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3.09.05]

(가)	<p>갑: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요,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떤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p> <p>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p>
(나)	

<보 기>

ㄱ. A: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ㄴ. B: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ㄷ. B: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ㄹ. C: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자연법 윤리를 활용한 아퀴나스」

121.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09.13]

영원법은 모든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다. 만물은 신으로부터 영원법을 통해 각자의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원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실정법은 이성이 따르라고 명령한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①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②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라고 본다.
 ③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자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⑤ 불변하는 영원법과 가변적인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고 본다.

122.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09.10]

갑: 행복은 이성에 따르는 삶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성적으로 내재하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라 덕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현세의 행복일 뿐이고, 영원한 행복은 신을 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을: 행복은 오직 신앙으로 가능하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영원한 생명인데 원죄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인간은 신의 은총을 믿음으로써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의 나라로 가야 한다.

- ① 갑: 신앙이 이성보다 우선하지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② 갑: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준수해야 한다.
 ③ 을: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선의 결여인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④ 을: 신을 사랑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⑤ 갑, 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123.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1.14]

신 안에 있는 법이 영원법이고, 영원법이 인간에게 분유(分有)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본성을 포함하여 공동선을 위한 실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변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일에 추상적인 자연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정법이 필요하다.

- ① 실정법은 신이 제정한 것이고 실정법의 제정 근거는 영원법이다.
 ② 자연법을 이해하기만 하면 현세에서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다.
 ③ 신의 의지인 영원법이 불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법도 불변한다.
 ④ 영원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자연법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
 ⑤ 자연법에 어긋난 실정법은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124.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09.07]

갑: 덕은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때에,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모자람과 지나침 사이에 있는 것이다.

을: 덕 중에서 용기나 지혜는 국가의 한 부분에만 있어도 되지만, 절제는 나라 전체에 걸쳐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이 모두 갖추어진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다.

병: 덕에는 지상의 행복을 위한 것과 천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 있고, 법에는 영원법, 신법, 자연법 등이 있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이다.

- ① 갑: 실천적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 ② 을: 용기와 절제는 영혼의 탁월함이 아니라 신체의 탁월함이다.
- ③ 병: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서 지상에서 달성된다.
- ④ 갑, 병: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⑤ 갑, 을, 병: 참된 실재는 현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 모두에 있다.

125.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06.05]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 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①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 ②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 ③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
- ④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하다.
- 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

12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11.03]

갑: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을: 실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실체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삼각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의 본성이 아니라 자연 질서에서 나온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 ① 갑: 실정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하다.
- ② 갑: 이성이 선으로 인식한 자기 보존의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 ③ 을: 하나의 실체는 다른 실체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될 수밖에 없다.
- ④ 을: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 ⑤ 갑과 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이 계획한 목적을 위하여 움직인다.

12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06.05]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 ①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 ②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 ③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다.
- ④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 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12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09.10]

갑: 자연과 일치하는 삶이 곧 목적이다. 이것은 덕에 따르는 삶과 동일하다. 덕에 따르는 삶은, 우주를 주재하고 있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하는 삶이다.

을: 목적은 좋음의 성격을 지닌다. 좋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좋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

<보 기>

ㄱ. 갑: 유덕한 자일지라도 사건들의 우연적 진행을 바랄 수 있다.
 ㄴ. 갑: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ㄷ. 을: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다.
 ㄹ. 갑과 을: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의무론자인 칸트」

12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사례> 속 A의 행동을 도덕적 행위로 평가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이의신청 답변** [15.06.10]

- 선의지는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사 례>

A는 집으로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원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후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예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였다. A는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의무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도움을 받은 친구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준 거야. 뭘 바라고 한 것은 더더욱 아니야.”

- 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② 친구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 ③ 무조건적이고 필연적인 도덕적 명령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④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 ⑤ 친구를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130.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11.12]

갑: 의지의 선택이 도덕성을 결정한다. 선의지는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의무의 행위는 정언 명법으로 표현된다. 인간은 정언 명법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따른다. 이런 이유로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이 되는 것이다.
 을: 의지의 순수한 자기입법이 도덕적 의무의 근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의무가 개인의 의지에 근거한 주관적 도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관적 도덕은 객관적 법으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인륜으로 종합된다.

- ① 갑은 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불행을 낳게 되면 비도덕적 행위로 본다.
- ② 갑은 도덕 법칙의 필연성이 도덕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윤리의 사회적 측면에 주목하여 윤리의 상대적 특성을 강조한다.
- ④ 을은 윤리의 역사적 특성이 참된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의지의 자율성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아님을 강조한다.

※ ‘을’은 당시 교육 과정에 있었던 헤겔임.

131.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06.03]

인간은 분명 신성하지 않으나, 그의 인격 속의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피조물들을 모두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직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이다. 그의 자유가 가지는 자율성 때문에 그는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가 된다.

- ① 이성적인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입법할 것이라고 본다.
- ②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 ③ 모든 준칙은 보편성을 가지며 도덕 법칙의 예외는 없다고 본다.
- ④ 선한 의지와 무관한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인간의 자연적 경향성도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32.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8.11.18]

갑: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얻는다. 공감(共感)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한다. 어떤 성질이나 성격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가 없다.

- ① 갑: 이성은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 ② 갑: 행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도덕적 구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을: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을: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⑤ 갑, 을: 도덕 판단의 근거는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133.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9.09]

갑: 행복은 하나의 목적으로서 유일하게 바람직한 것이며, 최대 행복의 원리는 도덕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에게 두 종류의 쾌락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질(質)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은 결코 최대 행복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을: 행복은 언제나 쾌적함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최고의 만족 상태이고,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과 자연적 경향성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다. 도덕 법칙 안에서 도덕성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은 없다.

- ① 갑: 행위의 동기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② 갑: 삶의 궁극적 목적은 가능한 한 고통이 없는 최대 행복이다.
- ③ 을: 실천 이성인 의무를 명령할 때 행복을 위한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
- ④ 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이다.
- ⑤ 갑, 을: 개별 행위의 도덕성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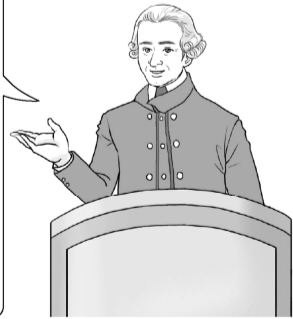
134. 다음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1.16]

자유의 이념은 나를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나는 선의지를 의식하고, 나의 모든 행위는 언제나 의지의 자율성에 알맞게 된다. 선의지는 감각적 욕망을 따르는 악한 의지에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자유의 법칙을 따르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그 법칙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 ① 자율적이지 않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이다.
- ②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
- ③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항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의무는 개인에게 도덕 법칙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자율성에 어긋난다.
- ⑤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하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135.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01]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 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입니다. 도덕 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러한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입니다.



- ①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법칙을 따르기 위해 힘쓴다.
- ②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 도덕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③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 ④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하려고 노력한다.
- ⑤ 의무 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13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11.16]

내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나는 이 둘을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찾거나 추측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둘을 눈앞에서 보고 나의 존재 의식과 직접 연결시킨다. 도덕 법칙은 나의 인격성에서 출발하고, 참된 무한성을 갖는, 그러나 지성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세계, 즉 예지계 속에서 나를 나타낸다. 예지계와 나의 연결은 결코 우연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필연적임을 나는 인식한다.

- ①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② 신과 인간 모두에게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
- ③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 ④ 개인의 주관적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 ⑤ 인간은 자연법칙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13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3.09.13]

무릇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도덕 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은 또한 도덕 법칙을 위하여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 알맞음은 매우 우연적이고 불안정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도덕과 무관한 근거는 때로는 법칙에 들어맞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더 자주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하고 도덕 법칙에만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
- ㄴ. 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은 도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ㄷ. 행위가 도덕 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 ㄹ.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3.11.14]

의지의 자율과 양립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지의 준칙들이 자율의 법칙들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신성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의지이다. 절대적으로 선하지는 않은 의지가 자율의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구속성이다. 따라서 이 구속성은 신성한 존재와 관련될 수 없다. 이 구속성에서 비롯한 행위의 객관적 필연성을 의무라 부른다.

<보 기>

- ㄱ. 선의지를 함유하지 않은 도덕적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 ㄴ.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
- ㄷ. 도덕적 의무는 의지를 지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ㄹ. 도덕 법칙의 내적 강제에서 생긴 준칙은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24.06.12]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이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서술하시오.

갑: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그것이 제시된 어떤 목적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즉, 선의지는 그 자체로 선택한다.

<문제 상황>

'초거대 생성형 인공 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산 등의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 A는 이 인공 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 학생 답안

갑 사상은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 지능'을 사용할 때, ㉠ 그 자체로 목적적 존재인 인간을 고려하고, ㉡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함을 조언할 것이다, 또한 ㉢ 의무 의식에 위배되더라도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야 하고, ㉣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으로 선택한 선의지에 따라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런데 ㉤ 의무가 문제시될 때에는 이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0.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4.11.17]

의무의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네 행위의 준칙이 네 의지에 의해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 ① 정언 명령은 여러 가지 정식(定式)들로 표현될 수 없다.
 ②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③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④ 정언 명령은 옳은 행위만, 가언 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
 ⑤ 정언 명령은 하지 말 것만 명령할 뿐 해야 할 것은 명령하지 않는다.

14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06.12]

갑: 도덕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이성 홀로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 이성의 결론이 아니다.

을: 천성적으로 동정심을 잘 느끼는 이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만족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비록 의무에 맞다 하더라도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① 갑: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행동은 선택한 행동이 될 수 없다.
 ② 갑: 정념의 목적과 그 수단을 선정하는 데 이성은 무능력하다.
 ③ 을: 자유는 보편타당한 정언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다.
 ④ 을: 선의지는 제한 없이 선택하지만 조건 없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⑤ 갑과 을: 보편적 인류애가 도덕 법칙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14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5.09.12]

선의지는,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

-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려 한다.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

1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143.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6.18]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보 기>

ㄱ. 갑: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ㄴ. 을: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ㄷ. 을: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ㄹ.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4. 고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5.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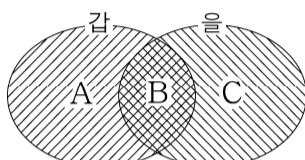
갑: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을: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 ① 갑: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갑: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
- ④ 을: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 ⑤ 갑과 을: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

13. 「밀의 ‘질적 공리주의’」

14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09.12]

(가)	<p>갑: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이며, 불행은 쾌락의 결핍이다.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기에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p> <p>을: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의무에서 행해질 때에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으로 가치가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 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행위가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도 옳지 않을 수 있다.
 ㄴ. B: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칙이 있다.
 ㄷ. B: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도 반드시 옳은 행위는 아니다.
 ㄹ. C: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박에 없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46.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공통된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7.06.07]



어떤 행위가 더 가치 있는지 판단할 때 우리는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측정된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합니다.

쾌락의 양으로만 행위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떤 행위를 평가할 때에는 쾌락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 기>

ㄱ.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한다.
 ㄴ.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다.
 ㄷ.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공리의 원리이다.
 ㄹ.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쾌락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7.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7.09.10]

(가)	<p>갑: 행복은 이성의 이상(理想)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상상력의 이상이다.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며, 선의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이어야 한다.</p> <p>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은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ㄴ. B: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원리로 삼을 수 없다.
 ㄷ.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통해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ㄹ. C: 도덕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8.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06.11]

(가)	<p>갑: 쾌락에 몰두한 사람이라도 '행락을 위해 자연적 재능을 방치해도 된다'는 준칙이 법칙이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 우리는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p> <p>을: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하여 비교하라.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면 그 행위의 좋은 경향을 말해 줄 것이고 고통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의 경향을 말해 줄 것이다.</p> <p>병: 쾌락의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는 양만 따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p>① ② ③ ④ ⑤</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F: 도덕의 원리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② B: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방법임을 간과한다.
 ③ C: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임을 간과한다.
 ④ D: 행위 관련 당사자들의 쾌락의 양을 고려해야 함을 부정한다.
 ⑤ E: 쾌락의 추구가 개인의 행위 준칙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한다.

14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1.09.09]

높은 차원의 쾌락과 저급한 쾌락, 이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기>

ㄱ.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보다 중요하다.
 ㄴ. 도덕 원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야 한다.
 ㄷ. 질 높은 고상한 쾌락이 질 낮은 저급한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
 ㄹ. 두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을 통해 두 쾌락에 정통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1.12.15]

(가)	<p>갑: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공리의 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따라야 할지 알려 준다. 우리는 공리의 원리를 통해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쾌락을 선택할 수 있다.</p> <p>을: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비롯한 행위의 필연성이다. 우리는 행위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서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가질 수는 없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의무를 동기 삼지 않는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ㄴ. B: 도덕 원리의 의미에는 인간의 평등함이 내포되어 있다.
 ㄷ. C: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른 의무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된다.
 ㄹ. C: 행위자의 품성을 고려하지 않고도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2.06.18]

갑: 의지의 자율은 모든 도덕법칙들과 그에 따르는 의무들의 유일한 원리이다. 이에 반해 자의(恣意)의 모든 타율은 전혀 책무를 정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무 및 의지의 도덕성 원리에 맞서 있다.

을: 어떤 두 가지 쾌락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 전체 또는 대다수가 도덕적 의무와 관계없이 그중 어떤 하나를 뚜렷이 선호한다면 그것은 더욱 바람직한 쾌락일 것이다.

<보 기>

ㄱ. 갑: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ㄴ. 을: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다.
 ㄷ. 을: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바람직한 쾌락을 선호한다.
 ㄹ. 갑, 을: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5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09.14]

갑: 공리의 원리는 이해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삼아야 한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

- ① 갑: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갑: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 ③ 을: 인간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 ④ 을: 쾌락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가치의 차이가 있다.
- ⑤ 갑과 을: 사회 전체의 이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153.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11.06]

갑: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쾌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이다.

을: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만족해 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 ①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임을 간과한다.
- ③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한 입법의 원칙을 세워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쾌락을 평가하는 기준이 양으로만 한정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도덕적 평가의 근거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한다.

15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06.10]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그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수 또는 공동체와 관련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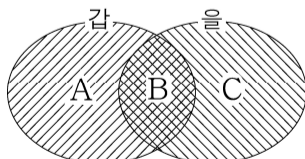
을: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보 기>

ㄱ.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최대 증진하는 것이다.
 ㄴ. 공리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적용된다.
 ㄷ. 쾌락에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ㄹ. 사회 전체의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초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5.06.07]

(가)	<p>갑: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즉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더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p> <p>을: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종류의 쾌락들에 비해 질적으로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과 공리의 원리는 양립할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 기>

ㄱ. A: 행복은 쾌락의 양의 증가를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ㄴ. B: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ㄷ. B: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ㄹ. C: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쾌락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밀의 '자유주의」

15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06.20]



저는 어떤 정부 형태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세 가지 기본적 자유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실천, 과학, 도덕, 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한 사상과 의견과 감정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타인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에 적합한 인생 계획을 설계하고, 초래될 결과를 감수하는 조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뜻을 같이하는 타인들과 함께 화합할 연대의 자유를 지녀야 합니다.

- ①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
- ② 개인적 삶의 기호는 다수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③ 개인의 자유는 민주 정부 아래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 ④ 개인이 타인들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는 없다.
- ⑤ 개인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단일한 사상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

15. 「현대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되는 매킨타이어와 샌델」

15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5.06.12]

(가)	<p>갑: 개인의 행동 중에 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은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뿐이다. 그 외의 경우 개인의 독립은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자신에 대해 각자는 주권자다.</p> <p>을: 개인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이해한다. 내 가족, 내 나라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는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범례></p> <p>□ : 출발 조건</p> <p>◇ : 판단 내용</p> <p>→ : 판단 방향</p> <p>○ : 사상가의 입장</p> </div> <pre> graph TD Start[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오" --> C{C} A -- "예" --> B{B} B -- "예" --> J1[갑의 입장] C -- "예" --> J2[을의 입장] </pre>

- ① A: 개인의 자율성보다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 ② B: 독립적 자아보다 관계적 자아를 강조하는가?
- ③ B: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적 도덕성의 주된 기초인가?
- ④ C: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선택권이 더 중요할까?
- ⑤ C: 개인의 좋은 삶은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안내되는가?

158.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09.15]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매우 칭찬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조차도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의무나 원칙을 강조하는 도덕은 각 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무시합니다. 도덕은 공동체의 선, 관행, 전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역사를 공유하는 인간의 도덕적 삶은 매우 복잡하고 풍부합니다.



- ① 갑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행위자의 의지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로 본다.
- ③ 을은 도덕적 삶에는 행위자의 성품보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도덕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단일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5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11.18]

갑: 우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정치적 책무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도덕적 연대와 의무를 포함한다. 개인을 무연고적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 책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을: 개성의 자유로운 발달은 인간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문명, 지식,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개인 각자가 주권자인 것이다.

- ① 갑은 시민의 좋은 삶은 공동선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사회에 선행(先行)하는 존재로서의 자율적 자아를 옹호한다.
- ③ 을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다수의 여론을 사상의 자유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국가를 각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13~14]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6.06.13~14]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택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도덕 판단의 기준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쾌락 추구하고 고통 회피가 입법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될 수 있습니다.



160. 갑, 을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 ① 갑: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여야 한다.
- ② 갑: 의무를 따르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을: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도덕 원리를 따라야 한다.
- ④ 을: 감각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갑, 을: 유용성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근거로 보아야 한다.

161.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덕은 전통과 서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내면화된 덕은 일반화된 법칙으로부터의 추론 과정을 거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행위자의 판단력으로 드러난다. 덕의 소유는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덕의 결여는 선의 성취를 방해한다.

- ①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이 존재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③ 합리적 판단 능력이 도덕의 필수 조건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개인의 도덕성 형성은 역사적 맥락과 무관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 원리의 이해보다 도덕적 품성 함양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162.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09.18]

‘실천’이란 혼자 축구공을 열심히 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기하는 축구 경기 자체이다. 단순히 혼자 공을 차는 것에는 축구 경기의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내재적인 선이 없다. 이러한 실천이 덕의 척도와 규칙이 된다. 덕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 내재된 선의 성취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에 참여할 때 유덕한 사람이 된다.

<보 기>

- ㄱ. 덕은 공동체와 독립된 추상적 도덕 원리를 따를 때 습득된다.
- ㄴ. 의무감에서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유덕한 행위가 되기 어렵다.
- ㄷ. 존경스러운 인격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유덕한 사람이 될수 있다.
- ㄹ. 인간의 유덕한 성품보다 도덕 규칙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3.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8.11.14]

갑: 덕을 추구하는 삶은 최대 행복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대 행복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 이외에 질도 고려해야 한다.

을: 덕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 자질이다. 덕을 소유하고 실행함으로써 실천 안에 들어 있는 선을 실현할 수 있다. 덕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서사적 자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 ① 갑: 지적이고 심미적인 활동은 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갑: 행복을 위한 육체적 쾌락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덕은 전통에서 벗어난 개인의 주체적 삶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 ④ 을: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덕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보편적 도덕원리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164.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9.15]

목적론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도덕의 합리적 정당화만을 시도했던 모든 기획이 실패하여 우리는 덕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덕의 전통, 즉 목적론적 인간관에서 출발하여 덕에 주목하는 고전적 전통으로 돌아가 그것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통의 담지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통 속에 내재된 ‘실천’에 참여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 삶의 서사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 ① 모든 덕은 일반적 규칙들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② 사회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③ 삶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닌 타고난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좋은 삶의 본질적 요소인 역사적 맥락과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
- ⑤ 행위자의 덕성보다 도덕 원리에 부합하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16. 「길리건·나딩스와 콜버그」

16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14.09.13]

<서술형 평가>

● 문제: 다음 현대 서양 윤리 사상가의 입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배려 윤리는 여성이 도덕에 대해 남성과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도덕 발달은 책임과 권리의 갈등 상황에서 양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책임을 강조하는 배려 윤리는 어떤 사람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권리를 강조하는 정의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 학생 답안

이 사상가는 정의 윤리가 인간의 도덕 판단 과정에서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맥락을 중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이성, 보편성, 공정성 등을 강조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이 사상가가 강조하는 배려 윤리는 여성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감, 유대감, 보살핌 등을 중시한다. …(중략)… 배려 윤리에 의하면,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위해서는 ㉤배려의 관점과 정의의 관점이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11.18]

갑: 우리는 낯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다. 우리가 덕의 소유 당사자나 사회에 유용한 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시인(是認)의 감정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이 도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공감은 유용한 덕이 지니는 도덕적 특징의 원천이다.
 을: 우리는 낯선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짧은 시간일지라도 배려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사람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기초한다. 배려의 관계는 배려의 노력을 수용할 때 완성된다.

- ① 갑은 사회의 다수에게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유덕하다고 본다.
- ② 갑은 이성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을은 도덕 행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배려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적 실천에서 타인의 감정 이해와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

167.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06.03]

(가)	도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정의와 공정성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	도덕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인간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도덕 교육도 배려와 동정심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① 도덕 교육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 ② 도덕 교육에서 인정(人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 ③ 도덕성에 있어 남녀의 성차(性差)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도덕성에 있어 원칙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 ⑤ 도덕성과 도덕 교육에서 구체적 상황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16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6.06.20]

갑: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는 최고 단계에서 공정한 재판관처럼 모든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결정을 내린다.
 을: 사람들은 도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논증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자신들의 특징을 특수한 관계에서의 배려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보 기>—

ㄱ. 갑은 도덕성 발달은 도덕적 추론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ㄴ. 을은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성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ㄷ. 을은 갑에 비해 관계성을 중시하는 보살핌의 윤리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인지 능력의 발달보다 정서 함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9.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9.06.10]

갑: 고립된 자아는 어떠한 합리적 역사도 가질 수 없다. 나는 누군가의 형제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특정한 사회적 공간을 계승한다.
 을: 보편적 권리는 공동체 의식의 상실을 보상해 줄 수 없다. 하지만 배려는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배려하는 자와 배려받는 자의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①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주체로 살아야 하는가?
- ② 윤리적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가?
- ③ 덕의 의미를 사회적이고 전통적인 맥락 속에서 찾아야 하는가?
- ④ 배려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도덕적 덕목인가?
- ⑤ 윤리적으로 행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가?

170.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11.17]

갑: 유덕한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모범으로 삼는다. '실천'은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의 품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며, 전통의 업적을 배우는 방법이다.
 을: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의 보살핌과 책임에 있다. 정의의 입장이 전제하는 공정성보다 인간관계에 내포된 인간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 기>—

ㄱ. 갑: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ㄴ. 을: 공정성의 가치와 보살핌의 가치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ㄷ. 을: 배려보다 권리를 도덕성의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ㄹ. 갑, 을: 추상적 도덕 원리보다 삶의 구체적 상황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71.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6.02]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17. 「현대인의 '존재 망각'을 지적한 하이데거」

17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16.11.20]

서술형 평가

● 문제: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신(神)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그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병에서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주관적 진리이다.

을: 죽음은 세계 안의 존재인 현존재(Dasein)에게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은 불안 속에서 더욱 철저하게 드러난다.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야 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윤리를 따르는 삶으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으며, ㉡ 자신을 신에게 내맡기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을은 ㉢ 과학적 합리성으로 현존재의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예견해 봄으로써 참된 실존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의 보편적 본질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6.18]

- 갑: 절망할 수 있음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점이다. 그런데 사실 절망은 큰 불행이며 타락이다. 절망의 반대는 신앙이며, 신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자신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며, 본래적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현존재는 '세계-내-존재'이다.

- ① 갑: 인간은 참된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도 절망할 수 있다.
- ② 갑: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심미적 실존 단계에 속한다.
- ③ 을: 현존재인 인간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이다.
- ④ 을: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 ⑤ 갑, 을: 인간은 독자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참된 실존을 깨닫는다.

17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11.16]

- 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 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 ① 갑: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 ② 갑: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 ③ 을: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④ 을: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175.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09.12]

- 갑: 절망은 병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곧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 을: 불안에는 현존재를 개별화시키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개별화는 현존재를 세상일에 빠져 있는 상태로부터 되돌려놓으면서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현존재의 두 가지 존재 가능성으로서 드러내 보여 준다.

—<보 기>—

- ㄱ. 갑: 윤리적 실존은 심미적 실존으로부터 도약하여 전개된다.
- ㄴ. 갑: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어도 진정한 실존은 가능하다.
- ㄷ. 을: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를 본래적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이다.
- ㄹ. 갑, 을: 불안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신의 존재를 믿어서는 안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09.12]

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이나 걱정에서 마음을 빼앗겨 헛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을: 죽음을 향해 자각적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현존재는 극적으로 고독해지며, 그 과정에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의 충만하고 고귀한 존재, 즉 진정한 '자기'에 직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직시는 나 자신을 본래적인 실존으로 도약시킨다.

- ① 갑: 신이 곧 자연임을 자각할 때, 참된 실존에 이르게 된다.
- ② 갑: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더라도 결국 절망에 빠진다.
- ③ 을: 현존재의 본질 회복을 위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회피해야 한다.
- ④ 을: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본래적 실존이 회복된다.
- ⑤ 갑, 을: 인간은 실존적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8. 「공산주의를 주장한 마르크스」

177.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06.18]

갑: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인 노동은 본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노동을 한낱 생존 수단으로 격하시킨다. 노동자는 상품만 생산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을 일종의 상품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을: 인간은 협력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타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자기애(self-love)에 대한 설득이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푸줏간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자기애 때문이다.

- ① 갑: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 ② 갑: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상 사회는 실현될 수 없다.
- ③ 을: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다.
- ④ 을: 시장 경제 원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
- ⑤ 갑, 을: 사적 소유제로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17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24.06.17]

갑: 여기에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을: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 ① 갑: 노동은 삶의 창조적 활동이 아니라 생계 수단일 뿐이다.
- ② 갑: 기술적 분업의 확대를 통해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 ③ 을: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④ 을: 구성원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가 실현된다.

17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5.06.18]

갑: 농사는 모든 남녀가 예외 없이 종사하는 생업이다. 이들은 여섯 시간만을 일할 시간으로 배정한다.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을: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사회의 번영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노동자를 점점 자본가에게 의존하게 하고 더 심한 경쟁에 몰아넣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사냥터로 밀어 넣어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린다.

- ① 갑: 생산이 풍족하지 못하므로 모두 검소하게 살아간다.
- ② 갑: 필요 이상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여가 활동이 허용된다.
- ③ 을: 역사의 최종 단계로서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 ④ 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협력하는 점진적 개혁으로 실현된다.
- ⑤ 갑과 을: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BION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180.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4.09.05]

(가)	<p>갑: 정치를 하면서 어찌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그대가 선을 원하면 백성은 선해진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게 된다.</p> <p>을: 요순의 도가 있어도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정치 [不忍人之政]를 하지 않으면 천하를 고루 잘 다스릴 수 없다. 어진 제후가 있기는 하지만 성왕의 도를 행하지는 않고 있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 A: 갑만의 주장 B: 갑, 을의 공통 주장 C: 을만의 주장</p>

- ① A: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 덕(德)에 의한 통치를 행해야 한다.
- ② B: 사단(四端)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로 보아야 한다.
- ③ B: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무차별적 사랑을 해야 한다.
- ④ C: 하늘과 인간의 일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C: 인의를 해치는 군주의 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181.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공통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1.05]

(가)	<p>갑: 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p> <p>을: 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p>
(나)	<p>갑: ㉠.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p> <p>을: ㉠. 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p>

- ① 정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과 권리의 포기에 합의하라
- ② 개인들 간의 가상적 계약을 통해 정부의 수립에 합의하라
- ③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공적인 결정에 이견 없이 합의하라
- ④ 공론의 형성 과정을 방해하는 대화 참여자들의 배제에 합의하라
- 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합의하라

182.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5.06.15]

<p>갑: 통치자가 작위하지 않으면[無爲] 백성은 저절로 순화되고, 통치자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며, 통치자가 일을 벌이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진다.</p> <p>을: 통치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하며, 재정이 궁핍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나라가 평안하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p>

- ①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 ② 법률과 세력으로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③ 백성을 무지(無知)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천명을 받은 성인(聖人)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 ⑤ 인위(人爲)를 통해 예치(禮治)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18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06.19]

<p>갑: 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p> <p>을: 국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제할 필요성에 기원을 두며, 이러한 통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에 의해 수행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p>
--

- ① 갑은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 저절로 발생한다고 본다.
- ② 을은 계급 없는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기에 실현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역사 발전의 최종단계에서 개인의 참된 자유가 실현된다고 본다.
- ④ 갑은 권력 분립을, 을은 권력 집중을 바람직한 통치 구조로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184. 다음 현대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5.09.05]

<p>무지의 베일 속의 계약 당사자들은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특정 사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채택할 원칙들로서 모든 합의를 규제하게 된다.</p>

- ① 가상의 상황에서 보편적 합의를 위해서는 동정심이 필요한가?
- ②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경제적 재화의 차등 분배보다 선결 과제인가?
- ③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위해 최소 수혜자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 ④ 기회의 균등을 통해 정의의 요건인 결과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가?
- ⑤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가?

18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09.16]

갑: 국가는 '모두가 모두에게 누대'가 되는 죽음과 공포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설립하는 공동체이다.
 을: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과 대립을 극복한 최고의 인륜이자, 사적 이해와 공적 이해가 결합된 절대정신의 구현이다.

- ① 갑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기심에 의해 행동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개인이 자기 보존을 위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인륜을 도덕과 법의 변증법적 발전의 최고 형태로 본다.
- ④ 을은 개인이 국가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 계약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을'은 당시 교육 과정에 있었던 헤겔임.

187.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11.14]

갑: 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을: 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① 갑은 국가의 강제력이 없어도 사회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본다.
- ② 갑은 계약에 합의하는 순간 자기 보존 욕구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사회적 우연성이 계약 상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 ④ 을은 적극적인 이타심에 의해 사회 정의의 원칙이 구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개인들이 합의한 사회적 규약은 객관성이 없다고 본다.

186.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5.11.04]

(가)	<p>갑: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명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言]이 순조롭지 않고,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p> <p>을: 무력을 바탕으로 인(仁)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霸道)이고, 덕을 바탕으로 인을 실천하는 것이 왕도(王道)이다. 통치자는 이익[利]의 추구보다는 인의(仁義)의 실현에 힘써야 한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 ① A: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 ② B: 인간은 선천적으로 양능(良能)을 지닌다고 주장하는가?
- ③ B: 정명(正名)에 입각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주장하는가?
- ④ C: 일정한 생업(恒産) 보장을 왕도(王道)의 시작으로 보는가?
- ⑤ C: 생산 활동을 통한 백성의 경제적 이익[利] 추구를 부정하는가?

188.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6.06.04]

(가)	<p>갑: 군자(君子)는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요순임금도 어려워했다.</p> <p>을: 성인(聖人)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교화되고,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며,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스스로 순박해진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 ① A: 친소(親疎)의 구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 ② B: 문명(文明)의 발달이 없는 작은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③ B: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 ④ C: 정명(正名)에 근거하여 포악한 군주를 교체해야 하는가?
- ⑤ C: 시비선악의 분별을 통한 무위(無爲) 정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19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11.13]

갑: 특정 지식이 제한된 최초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전체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원칙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불리한 사람의 처지를 향상하는 원칙에는 합의한다.

을: 일체의 외적 강제력이 배제되고, 상호간 비판에 열려 있는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① 갑은 개인의 합리적 이익 추구가 공정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최초 상황의 개인은 서로의 이익을 공평하게 비교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당사자들의 어떠한 주장에도 이의 제기가 허용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의사소통의 합리성과 사회적 갈등 해결은 무관하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결과의 정당성이 절차의 공정성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본다.

19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11.16]

갑: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현실태이다. 국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정신이다. 인간이 알진 모르진 국가는 모든 개개인을 자신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을: 국가는 다수의 계약에 의한 결집체이다. 계약은 칼에 뿔받침되지 않으면 말에 불과하며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지상의 신(神)인 국가는 외적의 침입과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① 갑은 개인이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인륜을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합의의 산물이라고 본다.
- ③ 을은 국가의 성립 이후 구성원들의 이기심이 소멸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계약 이후에는 도덕규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인위적 산물로 본다.

19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06.02]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 ① 정치 질서는 사회 계약을 계기로 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 ②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 ④ 자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인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자연 상태에서 경쟁과 불신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본다.

196. 갑은 고대, 을은 근대 사회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06.14]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① 갑은 가족이 마을이나 국가보다 완전한 최고의 공동체라고 본다.
- ② 갑은 정치적 의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 ③ 을은 국가 권력은 분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묵시적 동의로도 개인에게 정치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정치적 의무를 인간이 가지는 자연적 의무의 하나로 본다.

197.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7.06.14]

가치의 사회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는 결코 상상 속에서 철학적으로 고안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가치는 그 의미에 따라 상이한 절차와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Y의 소유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립한다.

- ① 가치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한 기본적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 ② 가상 상황에서 합의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정의론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④ 가치를 분배할 때에는 사회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⑤ 지배적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도 지배해야 한다.

198.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7.09.09]

갑: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을: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보 기>—

- ㄱ.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 ㄴ. 을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 ㄷ.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 ㄹ.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7.09.19]

(가)

갑: 공통의 정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숙고된 판단과 일치하는 합당한 정의관을 도출할 수 있다.

을: 어느 한 시민이 다른 시민보다 우선적으로 공직에 선출될 경우 정치 영역에서 두 사람은 불평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영역에서 공직에 선출된 시민의 직위가 그 밖의 영역에서 다른 시민보다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반적으로 불평등하지 않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 ① A: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 ② B: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
- ③ B: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 ④ C: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 ⑤ C: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200.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11.02]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들의 완성이다. 자신의 본성상 국가의 구성원이 될 수 없거나 이미 자족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인간만이 서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국가를 이루길 원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물질적 필요의 충족만은 아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목적이라면 노예나 짐승의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

- ① 국가는 구성원의 덕성 함양에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 ②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된다고 본다.
- ③ 국가와 구성원 간 합의로 정치적 의무가 소멸된다고 본다.
- ④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명목에 불과하다고 본다.
- 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훌륭한 삶과 개인의 좋은 삶은 무관하다고 본다.

201.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17.11.10]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갑: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 이외에는 어떤 안전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 있는 것보다 막강한 권력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공공의 칼에 의해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은 단지 빈말과 허풍에 불과할 뿐이다.

을: 모든 사람이 절대 군주에 복종해야 하는 상태보다 타인의 부당한 의사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연 상태가 훨씬 낫다.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사적 재판권을 최고 권력인 입법부에 위임한 시민 사회는 절대 군주제와 양립 불가능하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사람들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다고 보았으며, ㉡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을은 ㉢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자연권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 계약의 목적을 위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 권력에 대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개인들의 합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 그림은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7.11.11]

현명한 왕은 나라의 백성[民]이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恒心]이 없게 되므로 백성의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면서 선한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자입니다.

현명한 왕은 공적이 천하를 뒤덮어도 자기가 하지 않은 듯이 하고 만물로 하여금 저마다 기쁘게 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서 속박이 없는 무(無)의 세계에 노니는[遊] 자입니다.

갑 을

<보 기>

ㄱ. 갑은 인의(仁義)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의 실현을 추구한다.

ㄴ. 갑은 민심을 잃은 부덕한 통치자를 교체하는 혁명을 인정한다.

ㄷ. 을은 세속적 차별에서 벗어나 제물(齊物)의 경지를 지향한다.

ㄹ. 갑, 을은 법과 제도가 완벽되고 문물이 발달된 사회를 추구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3.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7.11.19]

(가)	<p>갑: 정의는 자신에 관한 특수한 지식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되는 원칙에 근거한다. 그 상황의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p> <p>을: 정의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당한 최초의 취득과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한 분배는 정의롭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보 기>

ㄱ. A: 사회적 직위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ㄴ. B: 약자의 복지를 위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 분배는 부당한가?
 ㄷ. B: 사회적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은 조정될 필요가 있는가?
 ㄹ. C: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소유 권리가 있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8.06.12]

갑: 모든 사람을 떼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 ① 갑: 만인의 계약을 통해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만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을: 이상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게 된다.
 ④ 을: 모든 계급의 연대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⑤ 갑, 을: 국가는 폭력 혁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소멸될 권력 기구이다.

205.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8.06.18]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 ① 국가의 구성원은 모두 정치적 의무를 지니는가?
 ②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하는가?
 ③ 정치적 의무의 성립 근거는 개인의 동의에 있는가?
 ④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는 모두 그 국가의 구성원인가?
 ⑤ 국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동의인가?

206.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06.19]

(가)	<p>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p> <p>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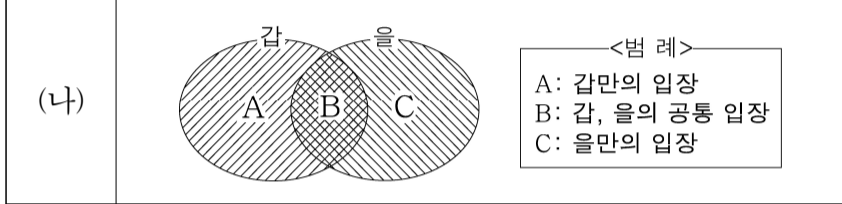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ㄴ.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ㄷ.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ㄹ.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7.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09.04]

(가) 갑: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도가 없으면 예악이 제후로부터 나온다. 현명한 임금은 덕으로 정치를 행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신하는 도로써 임금을 섬긴다. 사람이 도를 넓힐 수 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을: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라는 보존되고 도가 없으면 나라는 위태롭게 된다. 현명한 임금은 군자를 등용하여 법도를 밝힌다. 도는 임금이 밝아야 할 길이고, 군자는 예의를 다스리는 자이다. 사람의 본성(性)은 교화를 거친 후에 선에 부합된다.



- ① A: 규범을 부정하고 자연의 흐름에 순종하는 도를 추구해야 한다.
- ② A: 법령과 형벌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덕치를 도모해야 한다.
- ③ B: 욕구를 절제하고 예의를 밝혀 사회적 도리를 실천해야 한다.
- ④ C: 하늘을 인류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
- ⑤ C: 선천적인 내면의 본성을 확충하여 예치를 구현해야 한다.

208.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09.05]

갑: 으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성인(聖人)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는 일이 없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든든하게 한다.
 을: 도(道)는 오로지 빈(虛) 곳에만 모이는 것이니 이렇게 마음을 비움이 심재(心齋)이다. 성인의 다스림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행동하는 것에 그친다.

<보 기>
 ㄱ. 갑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무위(無爲)의 덕을 강조한다.
 ㄴ. 을은 분별적 지식을 얻는 수행으로서 좌망(坐忘)을 강조한다.
 ㄷ. 을은 성인의 다스림을 통한 자연적 본성(性)의 교화를 강조한다.
 ㄹ. 갑, 을은 인위(人爲)를 거부하며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9.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09.07]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 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보 기>
 ㄱ. 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
 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0. 다음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8.09.13]

전제(專制)의 특성은 하나의 수단을 통해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공직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선적인 의료 혜택 등을 얻는 것이다. 복합 평등 체제는 이러한 전제와 정반대이다. 복합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공직에 선택된다고 해도, X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우선적인 혜택이 X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 ①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
- ② 모든 사회적 가치는 필요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
- ③ 사회적 가치는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 ④ 복합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배적 가치는 평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 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면 안 된다.

211.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11.03]

갑: 새나 짐승과는 함께 모여 살 수 없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 인(仁)은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려야 사람들이 염치를 알게 된다.
 을: 사람들도 새나 짐승과 함께 생활하고 만물과 함께 무리 지어 나란하니 어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들은 마치 무지(無知)한 듯 순진무구하여 덕과 떨어지지 않으며 아무런 욕심도 내지 않는다[無欲].

- ① 갑: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 ② 갑: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 ③ 을: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 문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 ④ 을: 덕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를 세워야 한다.
- ⑤ 갑, 을: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21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11.09]

갑: 사람들이 모두 본성[性情]을 따르게 되면 틀림없이 혼란한 상태[暴]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드시 스승[師]과 법도[法]에 따른 교화가 있어야 하며 예의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을: 사람들을 무력으로 복종시키려 하면서 인(仁)을 행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패도(霸道)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왕도(王道)를 실천하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보 기>
 ㄱ. 갑은 예를 기준으로 삼아 욕망[欲]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백성은 먼저 항심을 갖춰야 항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인의(仁義)를 해치는 군주는 추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법이나 예에 의한 정치를 모두 부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3.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8.11.19]

(가)	<p>갑: 사회적 가치들은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하며, 각 분배 영역에는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이 있다. 어떠한 분배 영역의 가치도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p> <p>을: 사회적 기본 가치들 사이에 대한 선호를 기준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서열적으로 배열된다. 이는 기본적 자유와 경제적·사회적 이득의 교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 기>
 ㄱ. A: 정의로운 사회에도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가?
 ㄴ. B: 분배 영역들 간의 경계는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ㄷ. B: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상이한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ㄹ. C: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14.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11.20]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

<보 기>
 ㄱ.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
 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ㄷ.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5.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6.11]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정부에 복종한다. 안전과 보호라는 이익은 정부 제도 수립의 근원적 동기이자 우리가 정부에 복종하는 원천이다.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독립적일 때에는 결코 이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이익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정부에 저항하는 것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 ① 안전한 삶은 정치 공동체가 없더라도 항상 쉽게 향유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서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겨난다.
 ③ 국가에 거주하는 이유만으로도 항구적인 복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④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무관하다.
 ⑤ 정부에 복종하기로 명시적 동의를 한 사람만 정치적 의무가 있다.

2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06.13]

갑: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 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 ① 갑: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② 갑: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
 ③ 을: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은 계급 간의 갈등을 약화시킨다.
 ④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을 자본의 예속에서 해방시킨다.
 ⑤ 갑, 을: 인간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유 재산의 발생에서 비롯된다.

21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6.17]

(가)

갑: 개인의 자연적 재능은 단지 운일 뿐이며, 소득과 부의 분배는 자연적 재능이 갖는 자의적인 영향이 누적된 결과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을: 개인의 자연적 재능이 운의 문제라는 사실로부터 자연적 재능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는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그 자신의 소유로 간주한다.

(나)

<보 기>

ㄱ. A: 다수를 위해 소수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는가?
 ㄷ. C: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C: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18.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9.04]

○ 싸움이 끝나도 긍지를 갖거나 잘난 척하려 하지 말고, 교만 하지도 말라. 싸움이 끝나면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하고, 힘을 자랑하지 말라.

○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다. 이웃 나라가 서로 보이고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서로 오가지 않는다.

- ① 도둑은 법령이 많아지고 엄격해질수록 줄어든다.
 ② 백성은 생명을 중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③ 통치자는 무력으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④ 현자(賢者)를 높이지 않아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성인(聖人)은 사람들의 마음은 비워 주고 욕망은 약하게 해 준다.

219.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9.06]

갑: 정치는 이름을 바로 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고,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을: 선비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인(仁)이다. 선비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義)이다. 인에 머물며 의를 따르면 대인(大人)의 일이 이루어진다.

<보 기>

ㄱ. 갑: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ㄴ. 갑: 어진 사람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한다.
 ㄷ. 을: 왕도 정치는 백성의 생업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ㄹ. 갑, 을: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9.17]

(가)

갑: 정의로운 분배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첫째, 기본적 자유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다.

을: 정의로운 분배는 영역 간 가치의 일반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영역의 사회적 가치 X는 어떤 사람이 다른 영역의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X의 의미와 관계없이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나)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가상적 상황에서 선택되어야 하는가?
 ㄴ. A: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불평등을 제거해야만 하는가?
 ㄷ. B: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된다면 기본적 자유의 침해는 정당한가?
 ㄹ. C: 가치의 분배 기준은 해당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 다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2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9.09.19]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갑: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을: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정의한 것이다.
ㄹ. 갑,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22.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9.11.06]

갑: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된 권력이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
을: 입법권은 주권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도 없다.

- ① 갑: 인간의 소유권은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시민은 계약의 목적을 위반한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 ③ 을: 통치자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④ 을: 주권은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대표되어야만 한다.
- ⑤ 갑, 을: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는 계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권이 없다.

223.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1.07]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는 것이다.

-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224.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11.09]

(가)	<p>갑: 노동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가 행한 노동의 결과를 점유하는 것은 노동자로부터 그의 시간을 빼앗는 것과 동등하다.</p> <p>을: 노동자가 자본주의하에서 행하는 노동은 강제 노동과 같다. 노동자는 소외된 노동으로 인해 일하지 않을 때 편안하고 일할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p>
(나)	<p>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p>

<보 기>
ㄱ. A: 사적 소유를 보장하면서도 이상적인 분배가 가능한가?
ㄴ. B: 빈곤층의 복지를 위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부당한가?
ㄷ. B: 노동 투입은 최초 취득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가?
ㄹ. C: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지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25.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9.11.18]

갑: 대장부는 예(禮)를 충성과 신의가 얽어진 것이며 혼란이 생겨나는 시작이라고 여긴다. 도(道)를 잃게 되면 덕(德)이 나타나고 덕을 잃게 되면 인(仁)이 생긴다. 인을 잃게 되면 의(義)가 나타나고 의를 잃게 되면 예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을: 대장부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仁]에 거처하며,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禮]에 서서, 천하에서 가장 큰 도[義]를 실행한다.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면 백성과 함께 도를 실행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를 홀로 굳게 지킨다.

- ① 성왕(聖王)의 교화를 거쳐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 ②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인 마음[四端]을 확충하여야 하는가?
- ③ 군주가 제정하고 확립한 외면적 사회 규범[禮法]을 따라야 하는가?
- ④ 정치적으로는 왕도를 추구하고 패도(霸道)를 부정해야 하는가?
- ⑤ 이상적 인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양해야 하는가?

226.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03]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①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임을 간과한다.
- ⑤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227.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06.10]

(가)	<p>갑: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p> <p>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p> <p>병: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p>
(나)	

<보 기>

ㄱ. A: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ㄴ. B: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ㄷ. C: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ㄹ. D: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28.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긍정,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06.11]

갑: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국가를 떠나 살 수 있는 자는 신이거나 짐승뿐이다. 인간은 본래 국가를 필요로 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을: 정부는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구성원들이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기초한다. 만약 이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 ① 최선의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②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의감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③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④ 구성원들의 명시적 동기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⑤ 정부의 공공재 제공에 따른 혜택의 향유가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229.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0.06.17]

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을: 가장 훌륭한 도(道)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두의 것[公]이 된다.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유능한 자에게 관직을 주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이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13]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① 갑은 국가 권력 분립이 가능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본다.
- ② 갑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침해받아서 안 될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 ③ 을은 시민의 주권은 계약으로만 정부에 양도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사유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치적 복종 의무가 정당화된다고 본다.

231.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17]

갑: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 ① 갑: 인과에 대한 추리는 반복적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 ② 갑: 의지의 방향에 대해 이성과 정념은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
- ③ 을: 국가는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적 합의로 구성된다.
- ④ 을: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의 구속력은 국가 없이도 지속된다.
- ⑤ 갑, 을: 도덕은 인간에게 부과된 초월적 존재의 명령이자 요구이다.

23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9.18]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란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란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인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③ 을: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합의 이전에 보장된다.
- ④ 을: 원초적 입장의 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 ⑤ 갑, 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3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1.03]

갑: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면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최초의 상황보다 개선되며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 협동체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을: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지만 취득, 이전 및 교정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의관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한다.

- ① 갑: 사회적 약자의 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 ② 갑: 차등의 원칙에 따라 우연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한다.
- ③ 을: 재화 소유의 역사적 과정보다 최종적 분배 결과가 중요하다.
- ④ 을: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출된다.

234.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11.07]

갑: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모든 자본을 사회 전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전환시키고, 그 누구의 노동도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는 계급 없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이러한 영역들의 내재적 자율성이 존중되는 복합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① 갑: 이상 사회에서는 분업의 장려로 구성원의 자립성이 회복된다.
- ② 갑: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 ③ 을: 영역 간 가치의 자유로운 전환은 분배의 평등을 촉진한다.
- ④ 을: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⑤ 갑, 을: 경제적 재화는 사회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23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19]

(가)	<p>갑: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에 따라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p> <p>을: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p> <p>병: 자연 상태는 평화 상태에서 점차 불평등한 예속 상태로 이행한다. 사람들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자신을 일반 의지에 양도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아들인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 style="text-align: right;"><예시> ① 갑 → A → ②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F: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침을 부정한다.
- ② B: 권력 분할보다 집중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선책임을 부정한다.
- ③ C: 입법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계약 이후에는 국가만 시민에 대한 형벌권을 소유함을 간과한다.
- ⑤ E: 법률에 복종하는 시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236.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06.10]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 상대를 먼저 제압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을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가는 한 그들은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비교적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법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으므로 재산의 향유가 불확실합니다. 개인들은 각자의 소유를 더 잘 보존하고자 계약을 맺습니다.



- ① 갑: 평화와 안전은 자연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보장된다.
- ②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기 보존 욕구 때문에 이성을 지니지 못한다.
- ③ 을: 인간이 지닌 자연권은 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 ④ 을: 인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의 권력에 저항할 수 없다.
- ⑤ 갑, 을: 재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 절대 권력이 필요하다.

237.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1.06.12]

갑: 대도(大道)가 무너지니 인(仁)과 의(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니 큰 거짓이 생겼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

을: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롭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슬프다. 본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 법이다. 인과 의 또한 괴롭고 슬픈 것으로, 사람이 본디 갖춘 것이 아니다.

<보 기>

- ㄱ. 갑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목적 없이 노니는 것(逍遙)이야말로 자유의 경지라고 본다.
- ㄷ. 갑, 을은 큰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어야 이상적인 사회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아름다움과 추함(美醜)의 구별이 상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06.18]

갑: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다. 폭력에는 전쟁처럼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사회구조 자체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등에 내재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을: 천하에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겸애(兼愛)와 서로 이롭게 하는 교리(交利)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① 갑: 직접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는 달성된다.
- ② 갑: 소극적 평화를 이루면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는 없다.
- ③ 을: 자국과 타국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류애를 실천해야 한다.
- ④ 을: 친소(親疎)를 분별하는 사랑으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 ⑤ 갑, 을: 평화 실현을 위해서라면 적국에 대해 선제공격해야 한다.

23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09.08]

갑: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약을 하는 것이다.

을: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 ① 갑: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 ② 갑: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
- ③ 을: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 ④ 을: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 ⑤ 갑, 을: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240.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1.09.15]

갑: 군자는 의로움을 최상으로 여기고, 학문으로 벼를 모으며, 벼를 통해서 인(仁)의 덕을 행한다. 그는 먹는 데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 신중하다.

을: 군자로서 의로움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모두를 아울러 사랑할 것(兼愛)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보 기>

- ㄱ. 갑: 인과 예를 회복하여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실현해야 한다.
- ㄴ. 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 ㄷ. 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1.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1.12.03]

갑: 공화국 간에는 평화 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평화 조약이 단지 하나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을: 평화는 폭력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과 관련된다.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 외에도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있다. 이러한 폭력들이 제거된다면 적극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 ① 갑: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 형태는 세계 평화의 실현과 무관하다.
- ② 갑: 평화 연맹은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을: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 ④ 을: 평화 추구의 궁극적인 목표를 전쟁의 종식에 두어야 한다.
- ⑤ 갑, 을: 단일한 세계 정부를 창설해 적극적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24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12.10]

갑: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지니는데, 충족하지 못하면 얻으려 하고 적절한 제한이 없으면 분쟁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성왕(聖王)은 그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책무를 나눠서 욕구를 조화시키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였다.

을: 깃털 하나를 들지 못함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고, 백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왕도(王道)를 실천하지 않음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① 갑: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관직이 분배되어야 한다.
- ② 갑: 규범을 제정해서 욕망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교정해야 한다.
- ③ 을: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을 군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 ④ 을: 군주가 군주답지 못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면 그를 교체해야 한다.
- ⑤ 갑, 을: 예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한 후에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243.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06.08]

갑: 국가의 구성원들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정의로운 것은 실상 그 안에 있는 세 부류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함에 의해서이다.

을: 사상 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 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이다. 타인들이 가지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 ② 갑: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철학과 통치 권력이 결합되어 있다.
- ③ 을: 기본적인 자유는 사회적 약자에게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 ④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한다.

244.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06.12]

(가)	<p>갑: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p> <p>을: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p> <p>병: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 비판의 내용</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p><예시></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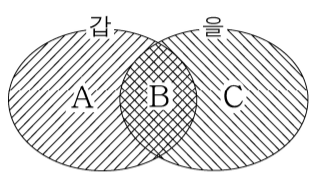
- ① A: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 ② B, D: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 ⑤ F: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24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06.17]

평화란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 평화가 모두 합쳐진 상태를 뜻합니다. 직접적 평화는 한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이 부재한 상태이고, 구조적 평화는 부정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평화는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화가 부재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① 직접적 폭력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적극적 평화가 실현된다.
- ② 권위주의에서 비롯된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③ 평화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④ 테러나 범죄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이다.
- ⑤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5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11.14]

(가)	<p>갑: 인간이 국가 속에서의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과 목적은 자기 보존과 그로 인한 만족된 삶을 위해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있다.</p> <p>을: 인간은 모든 분쟁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할 권위를 가진 입법부를 지상에 설정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① A: 사회 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 ② A: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야 한다.
- ③ B: 국가 성립의 유일한 목적은 개인들의 생명권 보장이다.
- ④ C: 입법부가 지닌 권력은 제한될 수 있어도 철회될 수는 없다.
- ⑤ C: 사회 계약 이후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처벌권을 지닌다.

251.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6.11]

벌 같은 동물도 군집 생활을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인간은 고유한 언어 능력에 기초하여, 더 높은 차원의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해 생활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에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선을 위해 존속합니다. 누군가 국가를 떠나 홀로 자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신 혹은 야수일 것입니다.



- ① 인간 공동체들 중 국가만이 좋음을 추구할 수 있다.
- ② 인간의 물질적 자족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 ③ 국가가 형성된 후에만 인간은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최선의 단계로서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
- ⑤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본성이 없지만 행복의 실현을 위해 국가를 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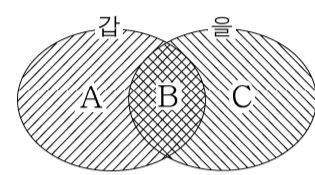
252. 고대 동양 사상가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6.12]

갑: 왕자(王者)가 되려면 예(禮)를 높이고 현자(賢者)를 존중해야 한다. 신뢰를 받으면 패자(覇者)가 되며, 이익을 좋아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위태로워진다.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면[禮治]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을: 왕도(王道)는 모든 사람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냄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교육에 힘써 효제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반백의 노인들이 거리에서 짐을 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①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 ②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 ③ 통치자는 하늘이 부여한 예로써 백성을 교화시켜야 하는가?
- ④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에 부합하는가?

253.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3.06.19]

(가)	<p>갑: 사회 계약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 신체와 힘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에 맡긴다. 주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반 의지뿐이다.</p> <p>을: 사회 계약의 목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 계약으로 성립된 리바이어던에게 복종해야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 ㄱ. A: 국가는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다.
 - ㄴ. B: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 ㄷ. B: 인민의 동의가 국가 형성의 근거이자 주권의 근거이다.
 - ㄹ. C: 자연 상태의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생명권을 보장받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4.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09.07]

갑: 제도[政]로 인도하고 형벌[刑]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도 모르게 될 것이다.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움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을: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천하를 마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병: 예의(禮義)는 다스림의 시작이다. 예는 본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이며,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펴는 길이며,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 ① 갑: 군주는 덕에 의한 통치보다 형벌에 의한 통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을: 왕도 정치를 하려면 사직(社稷)을 백성보다 중시해야 한다.
- ③ 병: 외면적 규범인 예(禮)를 통해 인간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
- ④ 갑과 을: 군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저버려도 군주를 교체할 수 없다.
- ⑤ 을과 병: 백성의 선한 본성을 확충하려면 사회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25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3.09.10]

(가)

갑: 인간은 자연 상태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개인은 사회 계약을 맺음으로써 일반 의지의 지배하에 이전과 다름없이 자유를 잃지 않게 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병: 경쟁심, 불신, 영광에 대한 욕구가 인간들 사이의 분쟁 원인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공통의 힘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나)

① A: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 집행권은 모두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D: 불법은 공통 권력이 존재할 때만 성립 가능성을 간과한다.
 ③ C: 자연 상태에서 분쟁하는 인간에게도 자연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④ E: 자기 보존을 위한 적극적 권리가 사회 계약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가 사회 계약의 계기가 됨을 간과한다.

25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11.10]

갑: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 ① 갑: 주권은 일반 의지에 의해 성립하며 정부를 통해 대표된다.
- ② 갑: 일반 의지가 강요하는 복종은 시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
- ③ 을: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 ④ 을: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은 자연법에 의해 불가하다.
- ⑤ 갑과 을: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

257. 근대 사회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3.11.20]

갑: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을: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민'과 '통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 ① 갑: 대표자는 계약의 주체에게서 권한을 양도받은 대리인이다.
- ② 갑: 국가는 주권자와 시민들 간의 계약 체결로 인해 설립된다.
- ③ 을: 민주주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할 이념이다.
- ④ 을: 시민이 지배하는 정부를 위해 시민의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대표자는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따라야 한다.

25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4.06.13]

갑: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을: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웃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지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가들이 통합되는 것보다 낫다.

- ① 갑: 비의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도 적극적 평화가 완성될 수 있다.
- ② 갑: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 ③ 을: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정치 체제와 무관하다.
- ④ 을: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 ⑤ 갑과 을: 국가 간 전쟁 행위 중지만으로도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259.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06.19]

(가)	<p>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인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인 자연법을 제안한다.</p> <p>을: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p> <p>병: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법 레〉</p> <p>→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와 F: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③ C: 법에 대한 복종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임을 간과한다.
-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음을 간과한다.
- ⑤ E: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260.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4.11.08]

적대 행위의 중단이 곧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은 아닙니다.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부재가 곧 평화에 대한 완전한 보증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보 기>

- ㄱ. 갑: 평화 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 ㄴ. 을: 목표로서의 평화뿐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 ㄷ. 갑과 을: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61.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4.11.09]

갑: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왕도(王道)를 시행해야 한다.

을: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요(堯) 임금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걸(桀) 임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못한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보 기>

- ㄱ. 갑: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 ㄴ. 을: 하늘은 성인(聖人)의 도를 따르는 무위(無爲)한 존재이다.
- ㄷ. 을: 하늘은 예(禮)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 ㄹ. 갑과 을: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 성인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6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11.12]

(가)	<p>갑: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권력이 없어 각자의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에 빠져든다.</p> <p>을: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 사회의 산물로 지배 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는 이 국가를 타도해야 한다.</p> <p>병: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법 레〉</p> <p>→ : 비판의 방향 A~F : 비판의 내용</p> <p>〈예 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함을 간과한다.
- ② B와 D: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임을 간과한다.
- ③ C: 사유 재산제가 성립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함을 간과한다.
- ④ E: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F: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됨을 간과한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BION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271. 다음 ㉠~㉣의 관계에 비추어 (가)~(라)의 내용을 이해할 때, 바르게 연결한 것은? [07.06.09]

㉠ 문제 인식 → ㉡ 원인 규명 → ㉢ 해결 방안 → ㉣ 전망 제시

(가) 해탈을 얻어 괴로움을 소멸시킨다.
 (나) 무명과 집착에 의해 업(業)이 쌓인다.
 (다) 현실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라)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을 통해 중도(中道)를 지향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라) |
| ② | (나) | (가) | (다) | (라) |
| ③ | (다) | (가) | (라) | (나) |
| ④ | (다) | (나) | (가) | (라) |
| ⑤ | (다) | (나) | (라) | (가) |

272. 다음 사상에 대한 옳은 주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08.06.06]

○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 작용하여 생겨나므로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게 된다.
 ○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입장, 즉 유(有)와 무(無)에 의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혜로써 세계를 관찰하면, 세상에는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무도 없고 그렇다고 영원 불멸하는 유도 없다. 따라서 모든 것이 유라는 것도 극단적인 설(說)이며, 모든 것이 무라는 것도 극단적인 설이다.

<보 기>

ㄱ. 초월적 실체를 근거로 유와 무의 관계를 파악한다.
 ㄴ.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통해 해탈을 지향한다.
 ㄷ. 개체들의 상관성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ㄹ. 진리가 현실을 벗어나 있음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이의신청 답변 [08.11.03]

○ 살아 있는 것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생명을 깊이 들여다보면, 곧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그 심오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온갖 것들 안에 여러분 자신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 인간은 살려고 하는 생명들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생명이며, 인간의 윤리는 살아 있는 것들에게 확장되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생명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것이 선(善)입니다.

<보 기>

ㄱ. 생명체들의 가치는 위계질서를 이룬다.
 ㄴ. 인간은 생명의 신비함을 직관할 수 있다.
 ㄷ. 생명 의지에 대한 통찰은 생명 외경을 낳는다.
 ㄹ.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74.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14.예비.12]

서술형 평가

○○반 ○○번 이름 ○○○

◎문제:(가), (나) 사상의 자연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가) 사람의 삶은 기(氣)가 모인 것이니, 기가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처럼 삶과 죽음이 서로 순환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사람(真人)이다.
 (나) 인(仁)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듯이 인간과 자연도 그것에 의해 연결된다. 따라서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밝은 덕을 밝혀 본연을 회복하는 사람이 대인(大人)이다.

◎학생 답안

우주 만물에 대하여 (가)는 ㉠ 기(氣)의 흐르는 자연 현상의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고, (나)는 ㉡ 인(仁)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 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가), (나)는 ㉢ 우주 만물의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 우주 만물 각각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간주한다. 또한 ㉣ 우주 만물을 통칭된 전체가 아니라 분리된 부분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로 본다. ...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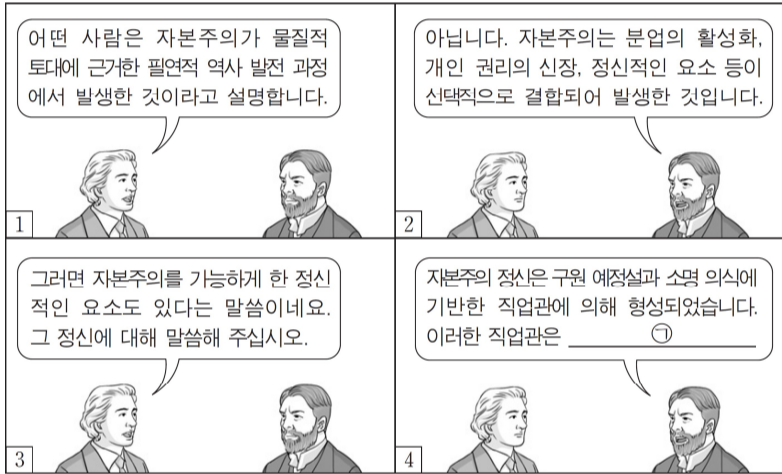
- ① ㉠ ② ㉡ ③ ㉢ ④ ㉣ ⑤ ㉣

275.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예비.17]

나는 남녀의 '도덕적 목소리'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중략)...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자유나 정의 등 보편적 목적을 향해 직선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그들의 주장이 ㉠이라고 생각한다.

- ①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나 소속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여성적 사유가 남성적 사유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가 도덕의 핵심임을 무시하고 있다.
- ⑤ 친밀함과 보살핌이 자유나 정의만큼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276. 그림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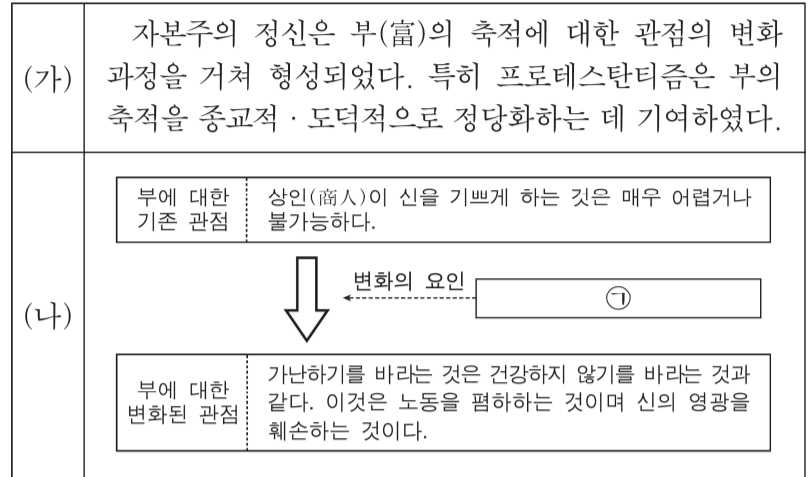
- ① 이윤 추구 활동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 ②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공동 소유를 강조하였습니다.
- ③ 노동을 특정 계급만의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 ④ 경제적 평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 ⑤ 절약보다 소비 활동을 중시하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277.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9.04]

(가)	부르주아는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시켰으며,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파렴치한 상거래의 자유만을 내세웠다. 인격적 가치와 진정한 자유는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통해서 쟁취될 수 있다.
(나)	㉠. 그러면 억압과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 그러면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	㉡
①	계급 지배를 타도하라	생산 수단을 공유하라
②	사적 소유를 폐지하라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라
③	계급 간 타협을 달성하라	계급 간 타협을 달성하라
④	혁명으로 국가를 소멸시켜라	계급 간 타협을 달성하라
⑤	의회를 통해 사회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라	생산 수단을 공유하라

278. (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09.16]



- ① 신이 인간의 운명을 예정했다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한다.
- ② 현실의 삶을 버리고 금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 ③ 직업을 통해 얻은 이윤은 개인적 쾌락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④ 신을 대리해 은총을 베풀어 주는 교회와 성직자를 따라야 한다.
- 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79.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11.08]

갑: 나는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 규칙을 선정한 다음 이 규칙과 일치하는 행위를 한다면 옳은 행위라고 생각해.
을: 아니야. 나는 개별적인 행위가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행위의 옳음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갑: 그렇다면 네가 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일까?
을: 내가 그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옳은 행위이지.
갑: 내 생각에 너는 너의 ㉠

- ① 거짓말을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어.
- ② 거짓말은 실천 이성이 세운 도덕법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거짓말은 유용성이 이미 검증된 규칙에 위배됨을 강조하고 있어.
- ④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 ⑤ 거짓말이 낱을 유용성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

28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09.12]

(가) 현실을 고통이라 자각하고 고통의 원인을 잘 알아 끊어 버리며, 열반을 얻을 수 있음을 자각하여 바르게 수행한 사람은 험난한 어려움을 건넌 현명한 성자요, 성인(聖人)의 깃발을 바로 세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A)		
	(B)			

(나) [가로 열쇠]
 (A): 지나침(過)이나 모자람[不及]이 없으며,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뜻하는 유학의 용어
 (B): 맹자가 주장한 덕치의 이상으로서, 패도(霸道)와 대비되는 정치. ○○ 정치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생명의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하여 절대자에 귀의하려는 것이다.
- ② 타인의 입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미루어 헤아려 보는 것이다.
- ③ 외물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절대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 ④ 사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 ⑤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을 벗어나 심신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281.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06.06]

(가) 인연(因緣)은 무상하고, 인연에 의해 생성된 현상도 무상하다. 현상은 '나'가 아니요, 나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나를 속박하는 이 법(法)을 끊어 버리면 영원한 안식처에 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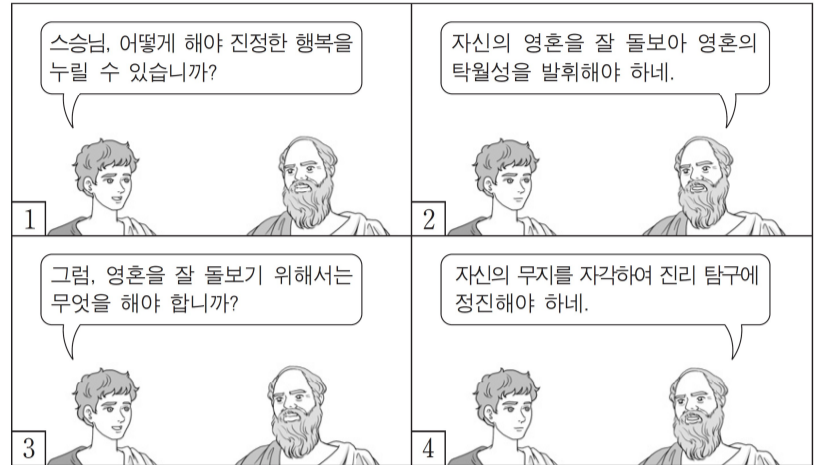
		(A)		
	(B)			

(나) [가로 열쇠]
 (A): '나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불교 용어. 제법○○
 (B):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문 체계를 세운 명나라 왕수인의 호. ○○학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중도(中道)를 추구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는 수행 방법이다.
- ②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다.
- ③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확충을 어렵게 하는 마음이다.
- ④ 나와 남을 차별하지 않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경지이다.
- ⑤ 백성의 욕망을 줄이고 그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통치 원리이다.

282.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11.01]



- ①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② 행복이 지식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 ⑤ 참된 앎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283.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이의신청 답변 [16.11.18]

걸어서 가는 것으로는 세계의 끝에 이를 수 없고,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면 괴로움[苦]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계의 끝은 분명히 있으나 오직 바른 지혜를 가진 자만이 능히 그것을 알 수 있으니, 그 지혜로 세간(世間)을 통달하면 피안(彼岸)에 이를 수 있다.

<보 기>

ㄱ. 우주의 삼라만상은 서로가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
 ㄴ. 윤회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생(生)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
 ㄷ. 일체는 불변하므로 공(空)하며 누구나 불성(佛性)을 갖는다.
 ㄹ. 무명(無明) 상태에서는 상호의존관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84. 다음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06.01]

메노이케우스에게
 그동안 잘 지냈는가? 보내 준 편지는 잘 읽었네. 이제 내가 생각하는 쾌락에 대해 자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물과 빵은 가장 큰 쾌락을 준다네. 배고픔 때문에 생긴 고통이 사라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진수성찬도 싸구려 음식과 다를 게 없어지지. 그러나 맛있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보다는 평범한 음식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네. 그러면 비싼 음식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혹 그런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미련 없이 평범한 음식에 다시 만족하게 된다네. …(후략)…

- ① 공적인 삶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 ② 부를 축적하여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육체적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쾌락을 죄악으로 생각하고 신의 뜻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⑤ 현세의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위해 명예와 권력을 좇아야 한다.

28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11.12]

갑: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쾌락의 총합이다. 이러한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 가능하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이익을 증진한다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공동체의 행복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누리는 풍부한 쾌락이다. 쾌락의 양에 대비해 그 질을 측정하는 원칙은 쾌락을 경험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선호이다.

- ① 갑: 입법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복 총합의 증대이다.
- ② 갑: 개인의 쾌락은 측정 가능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쾌락은 측정할 수 없다.
- ③ 을: 존엄감을 지닌 인간은 저급한 쾌락보다 고급의 쾌락을 추구한다.
- ④ 을: 누구의 행복도 증진하지 않는 자기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은 선한 동기보다 좋은 결과에 의해서 판단된다.

286.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06.06]

갑: 군자의 본성(性)은 비록 그의 뜻이 크게 행해진다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비록 궁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 군자의 본성에 속하는 인의예지는 그의 마음(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을: 사람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으면 본성을 높이게 되며, 스승과 법도가 있으면 노력(積)을 높이게 된다. 김매고 밭 가는 일을 쌓아 농부가 되고, 깎고 다듬는 일을 쌓아 장인이 되듯이 예(禮)와 의(義)를 쌓으면 군자가 된다.

- ① 갑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을은 외적인 예와 의를 쌓으면 모든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타고난 도덕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예를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8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18.06.12]

갑: 모든 쾌락과 고통은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범위이다. 어떤 쾌락이나 고통이 또 다른 쾌락이나 고통과 연결될 때 그 쾌락이나 고통도 측정될 수 있다. 그 기준은 다산성과 순수성이다.
 을: 어떤 쾌락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의 양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쾌락 대신에 다른 쾌락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만족의 양이 더 많은 쾌락이 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 ① 최대 행복을 가져올 유덕한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가?
- ② 행위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고통이 그 행위자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 ③ 감각적 쾌락과 지적인 활동에서 얻는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는가?
- ④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한 행위 자체의 옳음에 근거하는가?
- ⑤ 행위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가?

288.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11.01]



- ① 타고난 자연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禮)에 따라 행동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 나간다.
- ③ 나와 남의 상호 연계성을 자각하고 남의 해탈을 위해 헌신한다.
- ④ 만물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타고난 인의(仁義)의 덕을 함양한다.
- ⑤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박하게 생활한다.

289.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06.05]

(가)	중생(衆生)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릇된 견해이다. 그것은 다만 허망한 요소들의 집합일 뿐, 거기에 중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여러 부품이 합쳐져 있는 것을 세간에서 수레라고 하듯이 오온(五蘊)이 인연에 따라 화합한 것을 잠시 중생이라 부를 따름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d style="width: 20%;"></td></tr> <tr><td></td><td></td><td>(A)</td><td></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C)</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민간 신앙, 불교 및 도교가 결합된 종교의식으로 연등회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국가적인 양대 행사 중 하나 (B): 공평하고 올바름. 예) '○○ 무역' (C): 도가와 도교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저술로서 "노자"라고도 불리는 경전</p> <p>[세로 열쇠] (A): 개념</p>									(A)					(B)							(C)									
		(A)																													
	(B)																														
		(C)																													

- ① 자신의 업에 따라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 ②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 ③ 중도의 수행 방법으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길을 뜻하는 말이다.
- ④ 모든 존재는 더불어 존재하며 인연에 따라 생멸함을 뜻하는 말이다.
- ⑤ 진리를 깨달아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29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9.06.15]

(가)	<p>갑: 유용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 증감 여부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원칙이다. 쾌락의 측정 기준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p> <p>을: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 타당하다면 그 원칙은 객관적이다.</p>
(나)	

<보기>

ㄱ. A: 도덕적인 행위의 판단 기준은 쾌락의 양과 질에 있다.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
 ㄷ. B: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원리가 있다.
 ㄹ. C: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91.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0.09.03]

성인(聖人)은 아무런 속박이 없이 자연에 노닌다.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여기고, 예의 규범을 몸을 얽매는 갓풀[膠]*로 여기며, 도덕을 교제의 수단으로 여기고, 기교를 장사하는 솜씨로 여긴다. 성인은 모략하지 않으니 어찌 지식이 필요하고, 꺾고 다듬지 않으니 어찌 갓풀이 필요하겠는가!
 *갓풀: 짐승의 뼈나 가죽을 고아 굳혀 만든 풀.

- ① 무명(無明)에서 비롯되는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가?
 ②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③ 의(義)를 쌓아 자연과 하나 되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하는가?
 ④ 시비와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가?
 ⑤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과 예를 가르쳐야 하는가?

292.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노트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11]

○갑은 대다수 사람들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의 주장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옳은 행위가 되는 부적절한 경우를 발생시킨다. 또 인간의 내면적 동기를 소홀히 하고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을은 정언명령으로 표현되는 도덕 법칙을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의 주장은 형식에 치우쳐,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 법칙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하며, 의무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갑: 인간의 행위가 고통과 쾌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갑: 행위의 옳음은 결과와 동기를 모두 고려해야 판단 가능하다.
 ③ 을: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
 ④ 을: 보편화 가능한 행위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갑, 을: 자신의 행복 증진은 보편적 도덕 원리 수립의 근거이다.

293.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9.17]

갑: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 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이러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한다.

을: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 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의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 ① 갑: 배려는 친밀한 관계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② 갑: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이다.
 ③ 을: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을: 개인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⑤ 갑, 을: 도덕 판단은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

294. 다음은 어느 현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1.20]

○○○ 선생님께

도덕적 행위에 관한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달리 도덕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행위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무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문제와 무관하게 우리의 도덕적 의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 _____ 고 생각합니다. ... (후략).

- ①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 ④ 도덕 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
- ⑤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간과한다

29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21.09.10]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인 행복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 좋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 좋음'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습니다. ' 덕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덕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 적당량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양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 때가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시점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 '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①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모든 좋음의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좋음에 있다.
- ④ 인간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좋음들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
- ⑤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296.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2.09.06]

갑: 각자의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가 고려되는 일정 수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쾌락 또는 고통의 가치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의 일곱 가지 조건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을: 인간은 동물적인 욕망보다 훨씬 더 상위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위 형태의 쾌락은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 도덕적 정서의 쾌락으로 단순 감각 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 ① 갑: 도덕 원리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없다.
- ② 갑: 이해당사자들의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③ 을: 자신의 존엄을 유지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을: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로 알 수 있다.
- ⑤ 갑, 을: 타인의 행복을 원하는 이타심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에 속한다.

29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3.06.14]

갑: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차감한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쾌락의 양과 질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 기>

- ㄱ.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유용성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 ㄴ.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가 아니다.
- ㄷ. 교양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
- ㄹ.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9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11.09]

갑: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道)와 의(義)를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集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을: 좌망(坐忘)은 자신의 육신과 총명(聰明)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보 기>

- ㄱ. 갑: 대인(大人)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良知)를 잃게 된다.
- ㄴ. 갑: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된다.
- ㄷ. 을: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心齋]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99.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11.09]

갑: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 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을: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보 기>

ㄱ. 갑: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 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

ㄴ. 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한다.

ㄷ. 을: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ㄹ. 갑과 을: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00.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5.11.14]

모든 사람은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 이성에 부여된 제1 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 계명은 '선은 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 ①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다.
- ②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④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
- ⑤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원법에 부합할 수 있다.

30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5.11.17]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으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 ① 자유 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 ②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한다.
- ③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 ④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 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302.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5.11.19]

(가)	<p>갑: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을: 국가는 지배 계급이 자신들의 공동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p>
(나)	

<보 기>

ㄱ. A: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ㄴ. B: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ㄷ. B: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ㄹ. C: 국가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03.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6.09]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된다.

- ① 갑: 주권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 ② 갑: 일반 의지에 의한 강요는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을: 시민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교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 ④ 을: 사회 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은 소유권을 갖는다.
- ⑤ 갑과 을: 정치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다.

30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6.06.12]

갑: 인(仁)을 지닌 사람은 함이 없음으로 하고, 의(義)를 지닌 사람은 함이 있음으로 하며, 예(禮)를 지닌 사람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도록 한다.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큰 거짓이 생겨났다.
 을: 인과 의를 잊고 예와 악(樂)을 잊으며, 감각 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마저 떠나서 완전히 통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큰 도의 변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경지[坐忘]에 도달할 수 있다.

<보 기>

ㄱ. 갑: 예법(禮法)이 아니라 인의의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ㄴ. 갑: 만물의 근원인 도는 언어로 한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ㄷ. 을: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心齋] 진인(真人)이 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타고난 본성을 유지해야 자연과의 합일이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0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6.14]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을,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이성이 의지를 반드시 규정한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 ① 정언 명령에 따르는 의무는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② 이성적 존재자는 자유의 이념 하에서만 객관적 법칙을 의욕한다.
- ③ 의지는 이성적 존재자가 법칙에 따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없다.
-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객관적으로 규정된 의지에 따른 행위이다.
- ⑤ 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는 법칙 준수를 위해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

306.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6.06.12]

갑: 천하의 해악은 두루 사랑(兼愛)하지 않으므로 생긴다. 두루 사랑하지 않으므로 제후들은 전쟁을 벌인다. 재난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길은 두루 사랑하는 방법뿐이다.
 을: 폭력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화의 구축 활동에는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제거가 반드시 요구된다.

<보 기>

ㄱ. 갑: 어진 사람은 이로움을 서로 나누고 해로움은 제거한다.
 ㄴ. 갑: 의로움의 실현은 차별 없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ㄷ. 을: 적극적 평화의 실현은 억압에서 자유로의 전환을 전제한다.
 ㄹ. 갑과 을: 자국에게 이익이 된다면 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0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6.17]

비이성적 피조물은 신법을 알지 못하고 자연이 부여한 경향성만 지닐 뿐이다. 반면에 인간은 비이성적 피조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성을 통한 신 존재 증명과 같은 철학적 탐구 외에도 신의 계시라는 가르침이 존재한다. 인간은 신의 계시, 즉 신법을 통해서도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

- ① 신(神) 존재의 철학적 증명과 신과의 합일은 동시에 실현된다.
- ② 비이성적 피조물의 자기 보존 성향에 따른 행동은 항상 옳다.
- ③ 신의 계시는 인간을 최고의 행복[至福]으로 인도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의 원천은 신의 섭리인 영원법이어야 한다.
- ⑤ 내세의 완전한 삶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308.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6.06.19]

(가)	<p>갑 : 정의의 형상 자체의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로운 국가는 서로 닮아 있다. 이 국가가 정의로운 까닭은 국가 안에 있는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p> <p>을 :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품성 상태이다. 정의는 중간에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중용이며, 부정의는 지나침과 부족함의 양극단에 관계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A -- 아니오 --> C{C} B -- 예 --> G[갑의 입장] C -- 예 --> E[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보 기>

ㄱ. A: 용기 있는 사람이 절제의 덕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가?
 ㄴ. B: 철학자는 이성이 욕구를 다스려 나타난 덕을 지녀야 하는가?
 ㄷ. C: 실천적 지혜가 정의의 덕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ㄹ. C: 자제력 없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부정의한 행위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09.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6.09.02]

갑: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가운데가 텅 빈 풀무와 같아서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이 무한하다. 하늘과 땅은 편애하지 않으니[不仁]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聖人)도 편애하지 않으니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을: 샘물이 말라서 물고기들이 맨흙 위에 나오게 되자 서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고 상대방을 침의 거품으로 적셔 주는 것은 강과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며 사는 것[相忘]만 못하다. 진인(眞人)은 덕을 지니고 조화된 마음으로 천하에 순응한다.

<보 기>

ㄱ. 갑: 무지하고 무욕한 사람이 되어야 소박한 덕을 회복할 수 있다.
 ㄴ. 갑: 만물 간 위계를 확립하여 부쟁(不爭)을 실현할 수 있다.
 ㄷ. 을: 모든 분별을 잊어서 잊되[坐忘] 참된 나를 되찾아야 한다.
 ㄹ. 갑과 을: 사회적 분란을 막기 위해 예법(禮法)을 고수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0.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03]

- 탐냄[貪], 성냄[瞋], 어리석음[癡]을 모두 버려라. 올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달아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정한 삶을 살게 된다.
-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지, 남에게 귀의하지 마라. 자신을 광명으로 삼고 법을 광명으로 삼지, 남을 광명으로 삼지 마라.

- ① 연기(緣起)의 가르침에 대한 집착도 경계의 대상일 수 있다.
- ② 올바른 견해(正見)를 얻기 위해 쾌고의 양극단을 지향해야 한다.
- ③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아도 열반(涅槃)에 이를 수 있다.
- ④ 자아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기 위해 무명(無明)에 도달해야 한다.
- ⑤ 현생에서 업(業)을 지은 자는 이번 생에서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3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05]

품성적 덕은 단지 올바른 이성에 따른 품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품성이다. 올바른 이성이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곧 이성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덕이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천적 지혜 하나만 갖추게 되면 동시에 모든 품성적 덕들을 가진 것이다.

- ① 모든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을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 ② 품성적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역도 성립한다.
- ③ 실천적 지혜의 대상은 자신의 좋음일 뿐 타인의 좋음은 아니다.
- ④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 ⑤ 유덕한 활동은 인간의 기능으로서 수행될 뿐 그 자체로 목적은 아니다.

31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12]

갑: 굽은 나무는 반드시 틀을 대어서 불에 쪼면 뒤에야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도 반드시 숫돌에 갈고 닦은 뒤에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본성이 악한 사람도 예의(禮義)의 지도를 받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을: 버드나무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훼손한 뒤에야 인의(仁義)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인의를 해치도록 이끄는 것이다.

- ① 갑: 인간의 주체적 노력으로 자연법칙(天)을 극복하고 바꿀 수 있다.
- ② 갑: 인간은 성정(性情)이 이기적이어서 구성원 간 협력이 불가능하다.
- ③ 을: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왕도(王道)의 근본이다.
- ④ 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면 본심을 잃어도 대장부가 된다.
- ⑤ 갑과 을: 소인도 스승의 교화를 통해 양능(良能)을 습득할 수 있다.

31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14]

선의지는 자기가 성취하는 것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 달성에 유익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유익이나 무익은 선의지의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의무 및 도덕성의 원리를 인간 본성의 특수한 성질에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 ①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실질적 내용에 있다.
- ②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일 뿐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다.
- ③ 선의지의 존엄성은 자연이 부여한 인간적 속성에 근거할 수 없다.
- ④ 선의지의 의욕은 곧바로 객관적 법칙에 복종할 뿐 준칙을 갖지 않는다.
- ⑤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 방해받으면 그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314. 사회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16]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고 동일한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해 타인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킨다. 이처럼 공동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 ① 갑: 자연권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하여 형성된다.
- ② 갑: 주권자는 계약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인공적 인격이다.
- ③ 을: 자연법은 국가 수립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유효할 수 있다.
- ④ 을: 입법부는 신탁(信託)된 권력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폐지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공동 권력이 존재해야만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315.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11.02]

갑: 우리는 쾌락을 제일의 선이자 본성에 주어진 선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모든 선택과 회피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을: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지배한다.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에 따라서 계산해야 한다.

- ① 갑: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정의를 회피해야 한다.
- ② 갑: 행복은 완전한 평정심의 상태에 도달했어도 얻을 수 없다.
- ③ 을: 유용성 원리 외의 다른 근거로 행위의 시비를 판단해선 안 된다.
- ④ 을: 한 쾌락은 동일한 양을 가진 다른 종류의 쾌락과 교환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쾌락과 고통의 계산은 경험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316.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11.14]

갑: 국가와 개인은 서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국가에서 보았던 정의(正義)를 개인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혜, 용기, 절제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을: 국가는 여타의 다른 공동체를 포괄하는 최고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선은 다른 선들을 포괄하는 최고의 선을 목표로 한다.

- ① 갑: 국가의 정의와 개인의 정의는 구조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 ② 갑: 국가의 통치자는 생산자 계층의 소유물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국가가 없다면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없다.
- ④ 을: 국가는 다른 공동체의 완전한 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 ⑤ 갑과 을: 국가의 존재 목적은 단지 생존만이 아니라 좋음의 추구이다.

317.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09.12]

갑: 물은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것들과 다투지 않는다.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므로 도(道)와 가깝다. 그러므로 최상의 좋음은 마치 물과 같다[上善若水].

을: 물은 그 흐름에 있어 동쪽이나 서쪽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은 있다. 마치 물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사람은 그 본성에 있어 선하고자 한다[性善].

- ① 갑: 인간의 소박한 자연성을 법률과 제도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 ② 갑: 백성은 무위(無爲)의 삶을 위해 이론적 지식을 확충해야 한다.
- ③ 을: 항산(恒産)은 백성의 도덕성 유지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 ④ 을: 악을 행한 자일지라도 본심(本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 ⑤ 갑과 을: 도덕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예(禮)를 강조해야 한다.

3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6.11.17]

눈의 탁월성은 보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눈을 좋은 눈으로 만든다. 발의 탁월성은 걷는 기능을 잘 수행하게 만들고 그 발을 좋은 발로 만든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에도 어떤 기능이 있지 않을까? 영양 섭취와 생장은 인간뿐 아니라 식물에도 있으니 인간 영혼으로부터 제외해야 한다. 감각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도 있으니 제외해야 한다. 남는 것은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니 이것이 곧 행복이다.

<보 기>

ㄱ.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욕구적 부분에만 귀속되는 덕이 있다.
ㄴ. 좋은 분별력은 품성적 덕을 동반할 뿐 그 자체가 덕은 아니다.
ㄷ. 삶의 목적적 위계의 최정점은 좋음의 위계의 최정점과 같다.
ㄹ.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1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6.11.18]

이성은 실천적 능력으로서, 즉 의지에 영향을 주어야 할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의 진정한 사명은, 다른 의도에 이바지하는 수단으로서 선한 의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 ① 경험적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의지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 ② 의지만 있다면 자연 본성 자체는 욕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 ③ 이성은 선한 의지를 가진 개인에게만 고유할 뿐 보편적일 수 없다.
- ④ 인간의 자유롭고 이성적인 의지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자체적 선이다.
- 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320.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6.11.19]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화합은 신의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화합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공동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 이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모두의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양도받은 자가 주권자이며, 모두의 대리인이다.

<보 기>

ㄱ. 주권자가 시민에게 죽음을 명령하면 그는 복종해야 한다.
ㄴ. 자연 상태에 있는 한, 자기 보존 노력은 자기 소멸 위험으로 이어진다.
ㄷ. 주권자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힘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국가 설립에 반대하는 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계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